

고려시대 묘역식분묘의 위계와 특징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Hierarch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raveyard-typed Tombs in
the Goryeo Dynasty

- Centered on South Korea Regions -

이 원 정

새론문화재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II. 묘역식분묘의 개념과 분석

III. 묘역식분묘의 위계

IV. 사회적 배경과 지역별 특징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묘역시설이 있는 분묘를 묘역식분묘로 구분하고, 그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총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단계는 12세기 이전으로 양광도 지역에서만 확인되며, 소형의 면적만이 확인된다. 2단계는 13세기~14세기 중엽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보이나, 주로 양광도에서 확인된다. 또 새로이 중형의 묘역이 등장하게 되며, b형과 e형의 석단이 확인된다. 3단계는 14세기 후엽~15세기 중엽인 여말선초기로 2단계와 비슷한 분포양상이 확인되지만,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특징이 보인다. 또 새로이 대형이 묘역이 등장하게 된다.

묘역식분묘의 위계는 왕릉과 관인 분묘에서 주로 보이는 장대석과 부석층, 묘역 크기, 곡장과 호석, 석물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이는 상위 형식은 Ⅰd2·Ⅰe2·Ⅱb2식이며, 하위 형식으로는 Ⅱb1·Ⅱc1·Ⅱd1식으로 파악된다. 또 주로 중대형의 묘역이 상위 형식으로 자리한다.

묘역식분묘의 피장자는 중앙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낙향한 관인층, 즉 사족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묘역식분묘의 상대적 위계 차이는 그들의 품계나 가문의 세력 차이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위 위계의 묘역식분묘는 관인분묘의 묘형을 모방해 축조한 호장층의 분묘일 가능성도 있다.

묘역식분묘는 역로, 조운로와 같은 교통망 주변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로를 따라 위치한 대읍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역별로도 묘역식분묘의 조성 수 및 위계 차이가 확인되는데, 양광도의 13세기 도서지역 유적들을 비교하면 조성집단에 따라 각 유적의 묘역식분묘 위계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전라도는 다양한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무인 집권자들의 농장 확대, 원파의 전쟁, 왜구의 침입 등으로 주요 수탈 대상지가 되면서 지역 내 사족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경상도는 재지세력의 성장과 안동을 중심으로 한 신흥사대부의 중앙 진출 등으로 지역기반이 다져졌으며, 이에 따라 전라도와의 묘역식분묘 조성 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탐라에서는 원의 위상이 분묘로 반영되어 대형의 분묘가 확인되며, 교주도와 동계는 척박한 토지로 인하여 제시세력 성장이 어려워 묘역식분묘 조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묘역식분묘, 고려분묘, 묘역시설, 위계

I . 머리말

고려는 한국사에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중세사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고고학 연구는 선사·고대에 비해 미진한 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고려 분묘 연구는 지역별 분묘의 특징들을 살피고 부장품을 통해 피장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한편 고려의 분묘에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곡장과 석단 등과 같은 묘역시설이 부가되는 예가 확인된다. 묘역시설은 묘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축조되며, 동일한 매장 주체부를 갖더라도 다른 형태의 묘역시설이 확인되기도 한다. 기존 분묘연구에서는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묘역시설에 관해서는 시설의 유무로만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이희인 2003·2007; 양미옥 2005, 박미옥 2006, 황은경 2011, 김봉찬 2013; 이재철 2013; 고인해 2019). 묘역시설이 있는 분묘에 관한 연구는 주영민(2005·2007·2013·2019)이 유일하다 볼 수 있으며, 해당 분묘를 ‘묘역시설분묘’라 칭하고, 각 시설의 형식분류를 통해 지방사회의 변화상과 특징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묘역시설의 유무만을 가지고 형태적 변화 등을 살피는 것에 그쳐, 계측적 속성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하다.

고려는 경종 원년(976) 묘지의 보수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품계별 묘제 및 묘역 규모의 차이를 두는 사회였다.¹⁾ 따라서 묘역시설이 있는 분묘의 묘제, 묘역시설의 유·무, 형태의 차이는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피장자의 위계와 당시의 지역주의 성격과도 연관해 볼 수 있다. 이에 묘역시설을 갖춘 분묘를 묘역시설이 없는 일반묘와 구분하고, 시기별·지역별 특징과 변화를 확인하려 한다. 또 묘역식분묘 내에서 나타나는 위계 차이를 살펴 그 사회적 배경과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

연구대상은 고려시대 묘역식분묘이며, 그중 무덤의 구조와 부장유물을 파악하기 용이한 발굴조사가 진행된 분묘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고려시대부터 고려의 문화상이 이어지는 15세기 중엽인 麗末鮮初까지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남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분묘의 지역별 구분은 당시의 역사·

1) 경종 원년(976년)에는 문무양반의 묘역을 품계별로 규정하였는데, 1품은 사방 90步, 2품은 80보로 하고 봉분의 높이는 모두 1丈 6尺으로 하였다. 3품은 70보에 높이는 1장으로 하며, 4품은 60보, 5품은 50보, 6품 이하는 모두 30보로 하고, 높이는 8척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품계별 묘역은 분묘와 묘역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적인 의미로, 혼란하는 분묘와 묘역시설만으로는 그 품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高麗史』卷85, 志39, 刑法2, 禁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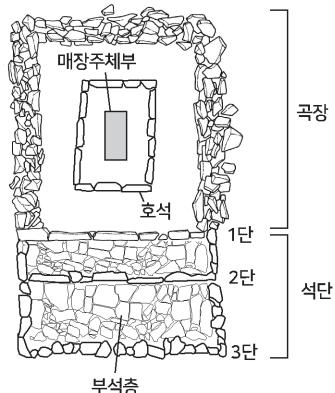
사회상을 파악하기 용이한 고려시대 행정단위로 분류할 것이다.²⁾ 다만 본고에서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지역이 제외되고 전체 묘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려 분묘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 지방의 분묘 문화의 한 면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묘역식분묘의 개념과 분석

1. 묘역식분묘의 개념과 현황

墓域의 사전적 의미는 묘소의 경계를 정한 구역을 뜻하며, 묘역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통칭하여 墓域施設이라 부른다. 묘역의 개념은 선사시대부터 등장하며,³⁾ 이를 구성하는 묘역시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전해 왔다. 고려의 묘역시설은 신라왕릉의 영향으로 보이지만,⁴⁾ 곡장·석단 등 차별화된 형태의 묘역시설이 나타난다. 또 묘역시설은 왕릉뿐만 아니라 관인분묘⁵⁾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좀 더 간략화된 형태로 설치된다.

이러한 묘역시설을 갖춘 분묘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方形墳, 方形墓, 墓域木棺墓, 墓域施設墳墓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⁶⁾ 그러나 본고에서는 묘역



[도면 1] 묘역식분묘의 세부 명칭

2) 본고에서는 현종 9년(1018)에 제정된 경기와 5도 양계를 원용하여 각 행정구역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신석기시대의 적석묘는 인골 위로 작은 할석을 쌓아 원형적석유구를 시설하였다. 묘역의 개념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 시원적 의미로는 볼 수 있다. 이후 청동기시대에는 지석묘 주변 일정 범위에 할석을 쌓아 묘역을 구분하였다(任鶴鐘 2008: 82).

4) 신라의 왕릉은 7세기 초엽 각각의 독립된 능원을 갖게 되며, 8세기 후엽에서 9세기 초엽이 되면 왕릉 앞으로 석물들이 배치된다(김용성 2013: 11~36).

5) 조시된 관인분묘로는 許有全(1324), 權準(1352), 朴翊(1420), 李萬幹 부부(1422 또는 1482) 묘가 있다.

6) 방묘, 방형묘는 지극히 무덤 외부적인 형태만을 말하며, 삼국시대 적석총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시기적으로 너무 광범위하다. 묘역목곽묘는 다른 묘제와 함께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고, 묘역시설분묘는 명칭만 두고 본다면 묘역시설로 보는 곡장과 석단, 호석, 망주석, 석인상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고의 연구대상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시설들이 묘역⁷⁾의 공간적 범위를 구분한다는 것에 기인해 ‘墓域式墳墓’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고려시대 묘역시설에는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곡장과 석단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피장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요소임과 동시에 묘역을 보호하고 그 범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도 묘역시설의 형태만 조금 변형될 뿐 같은 의미로 시설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묘역식분묘는 묘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곡장 또는 석단이 있는 고려시대 분묘로 정의하여 한다.⁸⁾

묘역식분묘에서 보이는 묘역시설에는 曲牆, 石壇⁹⁾과 함께 護石과 石物, 浮石層 등도 확인된다. 곡장은 분묘 뒤쪽을 두른 담장을 뜻하며, 분묘를 산짐승이나 산사태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묘역의 범위를 나타낸다. 또 곡장은 풍수지리의 장품법과도 연관이 있으며, 바람을 막아 생기를 모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상협 2007: 209). 석단은 할석 또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봉분 앞으로 설치한 단시설로 1~4단까지 확인된다. 현존하는 고려 왕릉 및 조선시대 분묘를 살펴보면 석단으로 마련된 공간에는 석물들을 배치하거나, 참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¹⁰⁾

호석은 봉분의 유실을 막기 위해 봉분 둘레를 할석 또는 장대석 등으로 두른 것이며, 석물은 봉분 주변 또는 봉분 앞 석단에 피장자의 안녕을 위해 세운 묘비석, 문인석, 석호, 향로석 등을 말한다. 부석층은 호석과 곡장 사이 또는 석단으로 마련된 공간에 넓게 깔린 돌들을 뜻하는데, 곡장과 함께 묘역을 표시하고 땅을 단단히 하여 풍화작용을 막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로는 석실묘와 석곽묘, 토광묘가 모두 확인되며, 이를 세분하여 석곽묘는 할석조와 판석조로, 토광묘는 일반 토광묘와 내부에 목탄 또는 회를 충전한 회탄묘¹¹⁾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지역 고읍리 1호 돌곽흙무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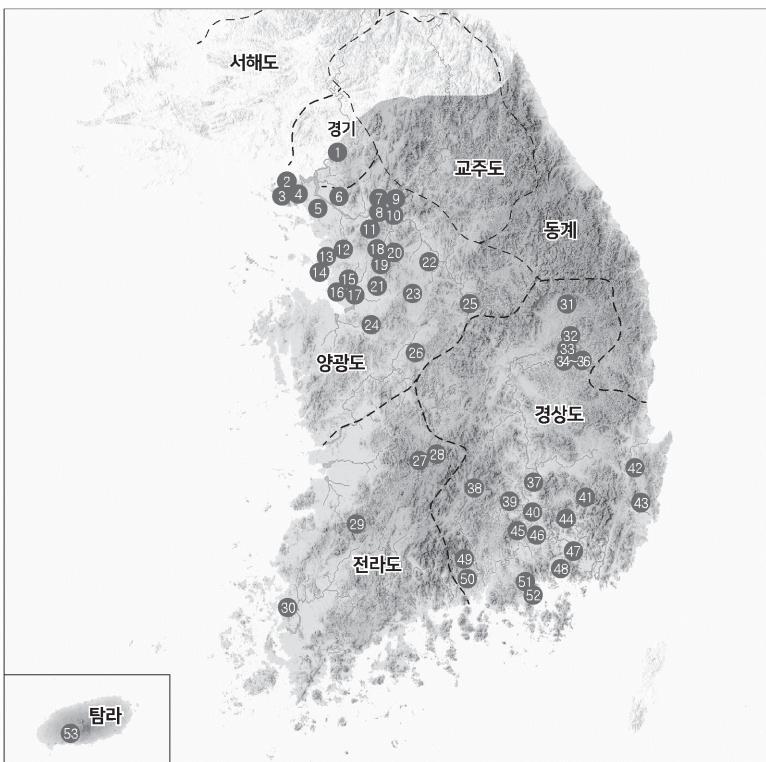
7) ‘墓域’이란 일반적으로는 묘지와 이를 보호하는 주변 지역을 아울러 말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곡장, 석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을 협의적 의미의 ‘묘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8) 묘역시설에서 호석은 봉분의 범위만을 알 수 있어, 호석만 단독으로 있는 분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 고려 시대 왕릉은 넓은 의미로 묘역식분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왕릉이 갖는 형태와 면적, 출토유물 등은 일반 묘역식분묘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서술할 것이다.

9) 석단은 고려의 것은 석단, 기단, 참배단으로, 조선의 것은 계체석이란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성격을 달리하는 용어들을 포괄하여 ‘石壇’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0) 석단을 뜻하는 조선시대의 階砌石은 봉분 쪽을 階節, 그 아래쪽을 拜階節로 구분 짓는다. 여기서 拜階節은 석단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절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회탄묘는 조명래가 사용한 용어로, 묘광의 바닥의 정지나 관광과 묘광 사이 공간의 충진 및 상부 밀봉에 목탄이나 회를 사용한 분묘를 말한다(趙明來 2007: 7~10). 묘역식분묘의 토광묘 중에서도 충전토로 목탄이나 회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분하고자 회탄묘란 용어를 차용하였다. 회탄묘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성되기 시



연번	지역	유적명	묘역식분묘	출토유물	조성연대 ¹²	문헌
1	경기	파주 서곡리 고려 벽화묘	석실묘 1	자기편, 구슬, 동전 등	1352년 (권준 묘)	문화재관리국(1993)
2	양광도	강화 대산리 고려분묘군	토광묘 4	청동 쌍용문경, 청동술가락	13C 중엽~ 14C 초엽	기호문화재연구원 (2019)
3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판석조석곽묘 3 활석조석곽묘 6 토광묘 4	첨자발, 청자화형접시, 철제수작화로, 동전 등	12C 후엽~ 13C 후엽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20)
4		강화 가락 허시중공 무덤	활석조석곽묘 1	청자잔, 고기병, 동전 등	1323년 (허유전 묘)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88)
5		인천 검단 마전동 · 원당동 · 블로동유적	활석조석곽묘 1 토광묘 1	청동술가락, 관정	13C 중엽~14C	호남문화재연구원 (2020)
6		고양 중신자구 더부골 고분군	활석조석곽묘 1 토광묘 4	청자발, 백자발, 청동발, 청동술가락 등	13C 후엽~ 14C 후엽	한양대학교박물관 (1993)
7		남양주 지금동유적	회단묘 1	도기호, 청동시저, 철제괭이 등	1422년 또는 2482년 (0만간 부부묘)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
8		남양주 지금동2유적	토광묘 1	분청사기지부, 기와편 등	15C 초엽~ 16C 초엽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9		남양주 호평 · 평내유적	회단묘 1 토광묘 1	구슬, 관정	1460년 (연안 이씨 묘) 15C중후엽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10		하남 덕풍동유적	토광묘 1		14C 후엽~ 15C 초엽	세종대학교(2005)
11		성남 판교동유적	회단묘 1	분청사기장고, 분청사기발, 백자발, 백자증자, 청동족집게 등	15C 중후엽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12		안산 부곡동 옛무덤	토광묘 1	청자잔, 청자증자, 절경 등	14C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1995)
13		화성 우음동유적	토광묘 1	청자소병, 도기병, 동경, 철제기위 등	13C 중후엽	한국문화유산연구원(2019)
14		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 고분군	활석조석곽묘 5 토광묘 11	청자발, 청자화형접시, 청자유병, 청자누침 등	13C 후엽~14C 후엽	한양대학교박물관 (2002 · 2006)
15		화성 분천리유적	토광묘 1	청자접시, 청자병, 은제동곳 등	13C	기호문화재연구원(2010)
16		화성 일리 · 원사리 고분군	회단묘 1	동전, 청동술가락 등	14C 후엽~15C 중엽	반월지구 유적발굴 조사단(1978)

연 번	지역	유적명	묘역식분묘	출토유물	조성연대	문헌
17	양 광 도	화성 송라리 고분군	회탄묘 1	동경, 철제가위 등	14C 후엽~15C 중엽	고려대학교 박물관(1995)
18		용인 마북리유적	할석조석곽묘 2	도기완, 도기항, 청동합 등	12C~13C	단국대학교 한국 민속학연구소(1997)
19		용인 공세동 고려고분	회탄묘 1 토광묘 1	심발형토기, 동경, 철제가위, 동전 등	14C 중엽~15C 초엽	국방문화재연구원(2010)
20		용인 제일리 분묘군	할석조석곽묘 1 토광묘 1	관정	13C	한국문화유산연구원(2015)
21		안성 지문리유적	회탄묘 1	청동숟가락, 불명철기	14C 중엽~15C 초엽	중앙문화재연구원(2019)
22		여주 매물리 용강골 고분군	회탄묘 1	청자접시, 연질토기, 기와 등	15C 초중엽	한림대학 박물관(1988)
23		음성 양덕리유적	할석조석곽묘 1	도기병, 절검, 철도자 등	13C~14C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2011)
24		천안 남산리유적	회탄묘 1	청자발, 도기병, 동전 등	14C 중엽~15C 초엽	국립공주박물관(1995)
25		충주 단월동 고분군	회탄묘 1 토광묘 1	구슬, 청동합, 청동숟가락 등	15C	건국대학교 박물관(1995)
26		청주 응암동 호미골유적	토광묘 1	장동호, 도기병, 청동발 등	13C 후엽~15C 초엽	중원문화재연구원(2015)
27	전 라 도	진안 수천리 고려고분	할석조석곽묘 1	철제가위, 관정	13C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2001)
28		무주 공진리유적	할석조석곽묘 1		13C~14C	전주대학교 박물관(2009)
29		순창 운림리 농소고분	회탄묘 1	청동합, 청동완, 도기저부 등	14C 중엽~15C 초엽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16)
30		무안 학산리 신학동 고분군	할석조석곽묘 1	관정 등	13C 중엽~14C	전남문화재연구소(2019)
31	경 상 도	봉화 금봉리 분묘군	토광묘 2	청자접시, 백자발, 백자접시, 도기병 등	14C 후엽~15C 후엽	안동대학교 박물관(1999)
32		안동 서삼동 벽화고분	석실묘 1	도기병, 동전, 철제도자 등		안동대학교 박물관(1981)
33		안동 안막동 분묘군	토광묘 1	청자접시, 분청사기발, 분청사기접시, 도기병, 청동발 등	14C 후엽~15C 중엽	안동대학교 박물관(2000)
34		안동 옥동유적	토광묘 3	청자완, 도기병, 동전 등	13C 후엽~14C 후엽	동양대학교 박물관(2007)
35		안동 정하동유적	회탄묘 1 토광묘 2	청자접시, 분청사기발, 벼루, 청동숟가락 등	15C 초엽	안동대학교 박물관(2000)
36		안동 성곡동 고분군 1	토광묘 2	철제가위, 청동숟가락 등	13C 후엽~15C 초엽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8)
37		달성 본리리유적	토광묘 1	청동발, 청동숟가락, 관정	14C 후엽~15C 중엽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6)
38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	석실묘 1		14C 후엽~15C 중엽	문화재관리국(1974)
39		창녕 우강리유적	토광묘 2	청동합, 청동숟가락, 철제가위, 관정	13C 후엽~14C 후엽	경남발전연구원(2004)
40		창녕 초곡리유적	토광묘 2	청동합, 동전, 철제가위 등	13C 중후엽	우리문화재연구원(2010)
41		청도 방지리 조선시대 분묘군	토광묘 2	분청사기발, 백자발, 기와 등	15C 중후엽	동국문화재연구원(2016)
42		경주 물천리유적	토광묘 2	관정	13C~14C	성립문화재연구원(2007)
43		울산 달천유적	회탄묘 1 토광묘 1		14C 후엽~15C 중엽	울산대학교 박물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2000)
44		밀양 고법리 벽화고분	석실묘 1	동전, 청동숟가락 등	1420년(박익 묘)	동아대학교 박물관(2002)
45		의령 경산리 분묘군	회탄묘 1	동곳, 도자, 청동숟가락 등	13C 후엽~14C 후엽	경상대학교 박물관(2004)
46		합천 중산동 고려석실	석실묘 1	정자저부편, 관정	14C 후엽~15C 중엽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21)
47		김해 죽곡리유적	토광묘 1	청동합, 청동증자, 청동숟가락	13C 후엽~15C 초엽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0)
48		창원 창곡·완암동 유적	토광묘 3	도기병, 도기호, 청동합 등	13C 후엽~14C 후엽	해동문화재연구원(2014)
49		진주 사곡리유적	회탄묘 2	도기병, 분청사기발, 기와 등	14C 후엽~15C 중엽	동서문물연구원(2017)
50		하동 우복리 고분	석실묘 1	벼루, 관정	14C 후엽~15C 중엽	경남문화재연구원(2021)
51		고성 봉동리 동촌유적	토광묘 2	분청사기발, 분청사기접시, 청동발, 동경 등	15C 초중엽	부경문화재연구원(2016)
52		고성 신룡리유적	토광묘 1	청동숟가락, 철제가위	14C 후엽~15C 중엽	동서문화재연구원(2009)
53	탐라	제주 하원동 분묘군	토광묘 2		1404년(백백태자 묘) 15C초중엽	제주사정립사업 추진협의회(2000)

[도면 2] 고려~조선시대 초기 묘역식분묘 유적 현황

소 2009: 148~149)의 예를 볼 때 화장묘에서도 묘역시설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내부시설로는 시상과 요갱, 사우혈, 편방 등이 있으며, 묘역식분묘에서 시상은 석실묘¹²⁾와 석곽묘에서 확인되고, 요갱은 석곽묘와 토광묘에서 확인된다. 사우혈과 편방시설은 토광묘에서 조사되었다.

묘역식분묘의 입지는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크게 산맥의 바깥쪽 가지능선이나 골짜기 안쪽 능선에 위치하는데, 주로 양쪽으로 구릉들이 감싸며 분묘 주변을 수계가 안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풍수지리의 장풍법에 입각하여 용맥의 정기가 모이는 혈자리로 볼 수 있다(최기훈 2019: 25~31).

현재까지 조사된 묘역식분묘는 전국의 53개소 유적에서 109기가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기, 양광도 65기, 전라도 4기, 경상도 36기, 탐라 3기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주도와 동계에서는 묘역식분묘가 조사되지 않았다.

2. 형식분류

묘역식분묘의 시기별·지역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부 속성을 검토해 형식을 구분하고자 한다. 또 구분된 형식은 출토유물과 유적의 양상을 통해 편년을 시도하여 묘역식분묘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를 설정하려 한다.

묘역식분묘의 세부 속성으로는 곡장, 호석, 석단, 석물, 부석층, 매장주체부, 내부시설, 묘역의 규모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고려시대 묘역식분묘의 특징이자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곡장과 석단, 묘역의 규모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1) 곡장

곡장은 전체 109기 중 46기에서만 확인된다. 곡장의 형태는 방형 또는 오각형으로 확인되나, 오각형은 단 2기에서만 확인되었다. 곡장은 왕릉과 함께 피장자가 중2품 이상인 權準, 朴翊, 許有全의 묘 그리고 상위계층의 묘제라 판단되는 석실묘¹³⁾와 판석조석곽묘(李義仁 2004)에서 대부분 확인되는 것을 볼 때 곡장 유무에 따라서도

작한 것으로 보이며, 고려로 유입되어 전파되는 14세기 중엽부터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 유적의 연대는 묘역식분묘에서 확인된 출토유물의 편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13) 본고에서의 석실묘는 왕릉과는 구분되는 소형석실묘라 할 수 있다. 다만 단벽에서 출입흔이 보이지 않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굴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석곽묘로 파악하였다.

일부 계층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곡장은 형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곡장의 유무에 따라 계층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곡장이 있는 것을 I형, 없는 것을 II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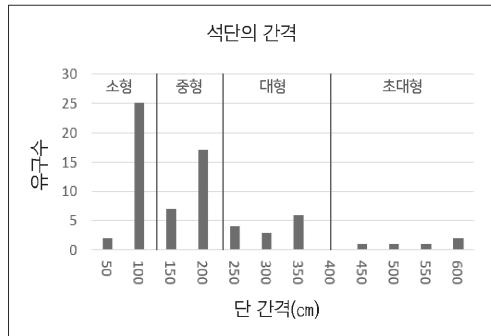
석단은 101기에서 확인되며, 1단이 40기, 2단이 38기, 3단이 17기, 4단이 6기에서 확인된다. 석단은 할석 또는 장대석을 이용하여 조성되었는데, 91기는 할석으로 축조되었고 10기는 장대석을 사용하였다.

묘역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는 석단의 면적은 단수보다는 석단 간의 간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도면 3]은 2단 이상의 석단이 확인되는 묘역식분묘 69기의 석단 최대 간격을 표로 표시한 것으로 최솟값은 46cm, 최댓값은 585cm이다. 이는 크게 100cm와 200cm, 400cm를 기준으로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소형은 100cm 이하의 간격으로 27기가 해당하며, 중형은 101~200cm의 간격으로 24기가 해당한다. 대형은 201~400cm 이상의 간격을 가지며 13기가 해당하고, 초대형은 400cm 이상으로 5기 해당한다. 이중 소형 간격은 참배를 위해 절을 하기에 다소 협소해 보여 매장공간을 높이기 위한 단시설로 추정된다.

따라서 석단은 단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할 수 있으며, 석단이 없는 것을 a형, 간격을 알 수 없는 1단인 것을 b형, 2단 이상인 석단 중 단 간격이 100cm 이하인 소형을 c형, 단 간격이 101~200cm인 중형을 d형으로 구분하였다. 또 초대형의 간격은 대형 면적의 묘역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 간격이 201cm 이상인 대형과 초대형을 묶어 e형으로 구분하였다.

3) 묘역의 규모

고려는 상당히 제도화된 사회로, 관인의 묘지 역시 당시의 기준척을 사용하여 품계별 차등을 두었다. 따라서 묘역의 규모는 폐장자의 계층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



[도면 3] 석단의 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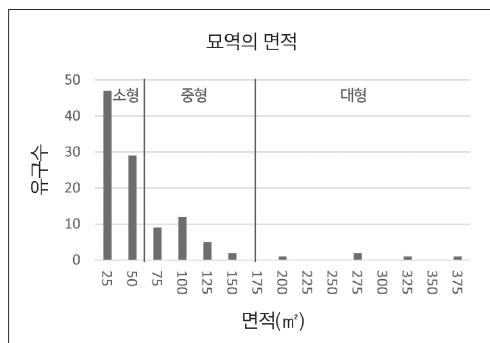
소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묘역의 잔존하는 면적을 계산해 [도면 4]로 표시하였다.¹⁴⁾ [도면 4]의 결과 묘역의 면적은 최솟값이 5.66m², 최댓값은 350.34m²이며, 크게 50m², 175m²를 기준으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형은 50m² 이하로 76기가 해당하며, 중형은 51~175 m²로 28기가 해당하고, 대형은 176m² 이상으로 5기가 해당한다.

따라서 묘역의 면적은 크기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50m² 이하인 소형을 1형, 51~175m² 이하인 중형을 2형, 175m² 이상인 대형을 3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묘역식분묘의 속성을 검토한 결과 조합된 형식은 총 19개로 확인되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묘역식분묘 형식분류

묘역 형태	면적	1 (50m ² 이하)	2 (51~175m ²)	3 (176m ² 이상)
I (곡장 有)	a (석단 없음)	I a1	I a2	-
	b (1단 석단)	I b1	I b2	-
	c (2단 이상, 단 간격 100cm 이하)	I c1	I c2	-
	d (2단 이상, 단 간격 101~200cm 이하)	I d1	I d2	-
	e (2단 이상, 단 간격 201cm 이상)	I e1	I e2	I e3
II (곡장 無)	b (1단 석단)	II b1	II b2	-
	c (2단 이상, 단 간격 100cm 이하)	II c1	-	-
	d (2단 이상, 단 간격 101~200cm 이하)	II d1	II d2	-
	e (2단 이상, 단 간격 201cm 이상)	II e1	II e2	II e3



[도면 4] 묘역의 면적

14) 묘역의 면적은 곡장과 석단이 잔존하는 외곽선을 기준으로 길이와 너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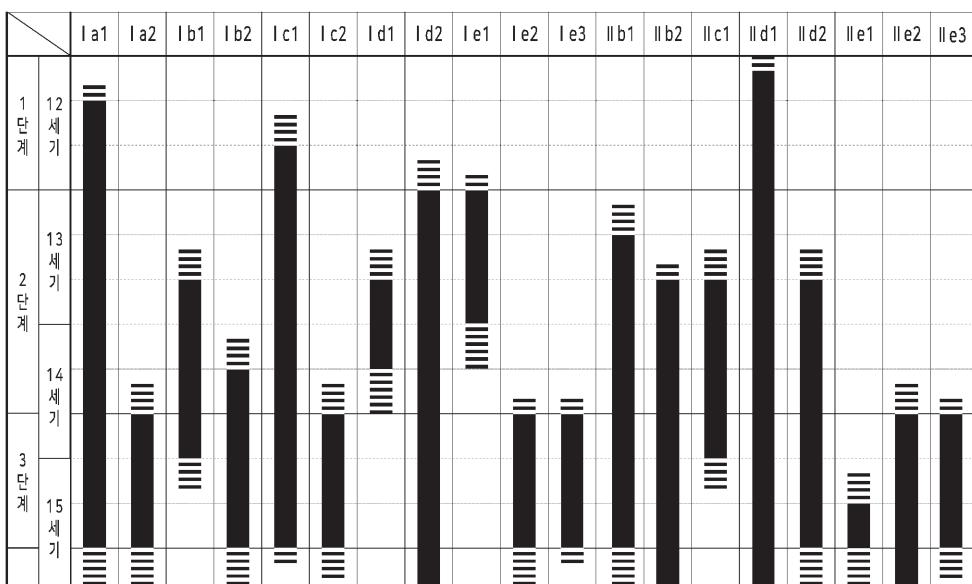
3. 변화 및 단계설정

묘역시설은 고려 전기부터 왕릉을 중심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이른 시기 왕릉인 태조 현릉(943), 경종 영릉(949) 등에서도 곡장과 석단 등이 확인되어 10세기부터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지역에서도 현존하는 관인분묘¹⁵⁾를 통해 고려 전기부터 묘역식분묘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조사된 예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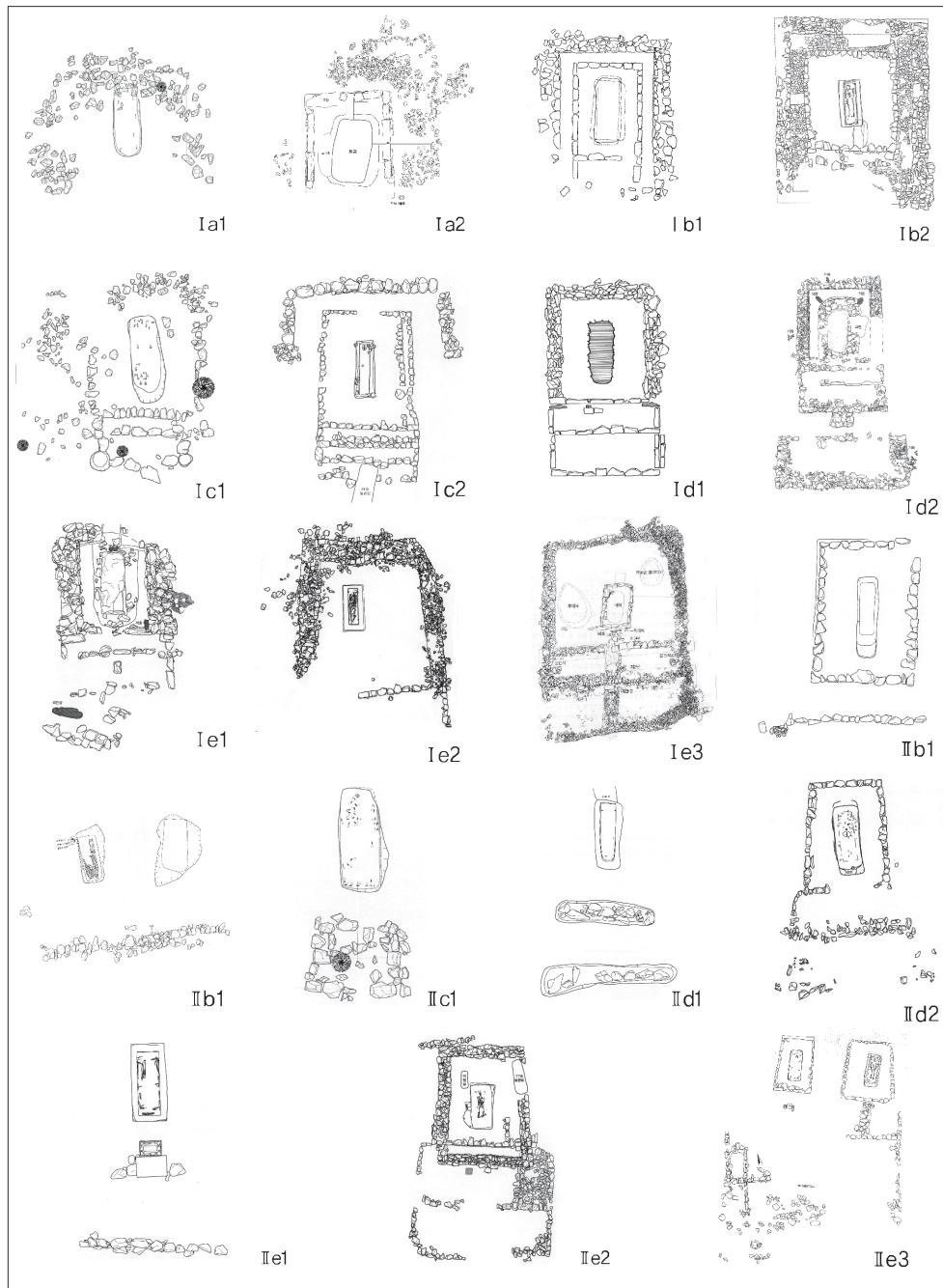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묘역식분묘의 편년은 각 형식의 출토유물을 기종별 편년안과 유적의 중심시기 등을 참고하여 상한과 하한을 파악하였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고려 전기에 보이는 도기발이 출토된 용인 마북리 7호묘로, 전기에는 보이지 않는 두 종류의 도기발의 공반을 볼 때 12세기 초엽으로 추정된다. 이후 13세기 후엽부터 묘역식분묘가 본격적으로 조성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묘역식분묘의 시기 구분은 묘역식분묘의 외형 변화를 중심으로 석단의 형태와 면적별 등장 시기에 따라 총 3단계로 대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단계는 양광도지역에서 소형의 묘역식분묘가 등장하는 12세기, 2단계는 양광도 이남으로 전파되며 중형

[표 2] 묘역식분묘 편년표



15) 현존하는 고려 전기 왕인분묘는 申壯節公墓(927), 晉州 洪毅墓(970), 徐熙將軍墓(998), 姜民瞻將軍墓(1021) 등이 있다. 이들 무덤에서는 묘역시설이 확인되고 있지만 발굴조사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의 묘역시설은 근래에 축축된 것이 많다.



[도면 5] 형식별 대표 유구(축척 부동)

(I a1. 안산 대부도 육곡 23호 토광묘, I a2. 순창 운림리 농소고분, I b1. 안동 서삼동 벽화고분, I b2. 천안 남산리 1호 토광묘, I c1. 안산 대부도 육곡 3호 토광묘, I c2. 청주 용담동 호미골 4호 토광묘, I d1. 강화 가락 허시중공묘, I d2. 강화 석릉 주변 40호 석곽묘, I e1. 강화 석릉 주변 52호 석곽묘, I e2. 화성 일리·원시리 1호 고분, I e3. 제주 하원동 1호분, II b1. 안동 성곡동 1호분, II b2. 안동 정하동 5-6호, II c1. 안산 대부도 육곡 14호 토광묘, II d1. 용인 제일리 3지점 20호 토광묘, II d2. 용인 공세동 고분D, II e1. 남양주 호평3자구 6호분, II e2. 성남 판교동 방형 구획 토광묘, II e3. 화성 송리리 1호분)

의 묘역식분묘가 등장하는 13세기~14세기 중엽, 3단계는 전국에서 묘역식분묘가 확인되고 대형의 묘역식분묘가 등장하는 14세기 중엽~15세기 중엽으로 구분된다.

1) 1단계

1단계는 고려 중기인 12세기에 해당한다. 고려 건국부터 수도인 개경 주변으로 조성되었던 묘역식분묘가 남한지역에서 조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¹⁶⁾

가장 이른 시기의 묘역식분묘는 II d1식 용인 마북리 7호묘로, 내부에서는 고려 전기부터 보이는 도기발이 출토되었는데, 구연 아래쪽이 단을 지며 외반하는 것과 기벽이 사선으로 뻗어 구연으로 연결되는 2가지 형태가 함께 확인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2가지 형태의 도기발이 함께 출토되는 예가 드물고, 능선은 다르지만 주변 석곽묘들이 고려 중기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고려 후기로 편년되는 8·9호묘에 의해 파괴된 점을 들 때 7호묘는 고려 중기인 12세기 이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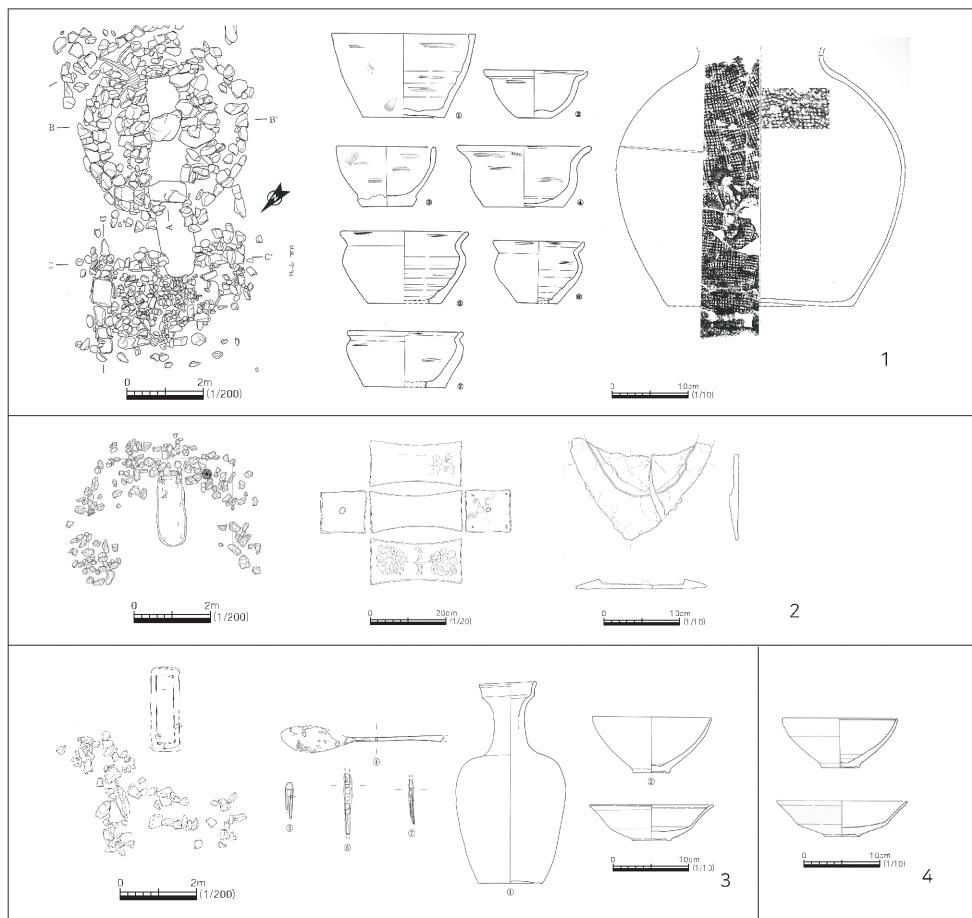
1단계 묘역식분묘는 총 5기이며, 모두 소형 면적인 I a1·I c1·II d1식이 확인되었다. 가장 먼저 곡장이 없는 II d1식이 확인되나 12세기 중엽부터는 곡장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곡장은 I a1식 안산 대부도 육곡2 23호 토광묘로 내부에서는 12세기 중엽~13세기 초엽에 유행한 음각모란문 청자두침이 출토되었다(김은경 2014: 89~92).

석단은 d식이 가장 먼저 확인되며, 곡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곡장이 있는 경우에는 석단이 아예 없거나, 좁은 형태인 c형으로 확인된다. c형의 석단은 화성 분천리 B 구역 44호 토광묘에서 처음 확인되며, 기벽이 사선으로 올라가 구연에서 직립하는 청자완과 동체 중간이 꺾여 올라가 구연부에서 외반하는 청자접시는 12세기 후엽

16) 고려 지배층의 묘지명을 보면 고려 전기 관인들의 매장지는 도읍 주변인 경기에서만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용선 2004: 169~187). 따라서 고려 전기에는 관인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북한지역인 개경과 경기지역에 묘역식분묘가 주로 조성되어 남한지역에서 확인되는 예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당시 정치·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 시기	고려 전기	무신정권기	고려 후기	고려 말기
경 기	96	51	56	15
양 광 도		8	3	7
경 상 도		1	3	3
전 라 도				1

고려 지배층의 묘지명 매장지 분포(김용선(2004) 수정 후 인용)



[도면 6] 1단계 묘역식분묘 및 출토유물(축척 부동)

(1. 용인 마북리 7호묘, 2. 안산 대부도 육곡 23호 토광묘, 3. 화성 분천리 B구역 44호 토광묘, 4. 강진 용운리 가마터 10호-Ⅱ 층)

~13세기 중엽로 편년되는 강진 용운리 가마터 10호-Ⅱ 층(國立中央博物館 2015) 출 토품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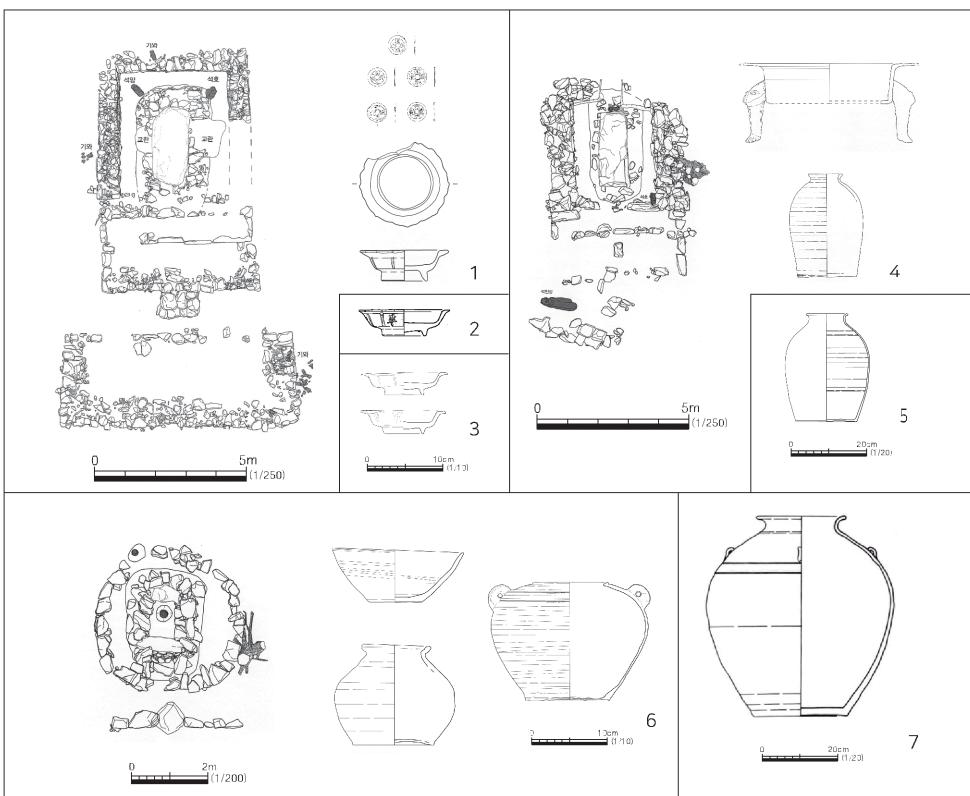
1단계의 묘역식분묘는 모두 양광도에 위치하며, 현재의 경기도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매장주체부는 할석조석곽묘 3기, 토광묘 2기이다. 대부분이 서향의 구릉에 위치하며, 시기를 달리하는 묘역식분묘와 함께 조사되었다.

2) 2단계

2단계는 고려 중·후기에 해당하는 13세기~14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2단계부터는 양광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묘역식분묘가 조성되기 시작한다.

2단계의 묘역식분묘는 총 47이며, 1단계에서 확인되는 I a1·I c1·II d1식도 여전히 조성된다. 13세기에는 I b1·I d1·I d2·I e1·II b1·II b2·II c1·II d2식이 등장하고, 14세기에는 I b2식이 확인된다.

2단계로 편년되는 유구 47기 중 18기에서 곡장이 확인되며, 절반 이상은 곡장이 없는 형태로 확인된다. 석단의 경우 2단계에 새로이 b형, e형의 석단이 등장하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b형 석단은 II b1식 강화 석릉 주변 54호 석곽묘로 출토된 고리형태 손잡이가 달린 도기호는 11~12세기로 편년되는 강화 삼흥리 E지구 가마터(國立光州博物館 2004, 湖南文化財研究院 2004)에서도 확인되어 고려 중기 이후의 것으로 보이며(韓惠先 2014 : 158), 같은 유적 52·53호 석곽묘를 파괴하고 조성된 것을 볼 때 13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된다. 이른 시기 e형 석단은 I e1식 강화 석릉 주변 52호 석곽묘로 출토된 獸面形火爐는 약한 양감의 얼굴 표현과 얼굴 하단부에서 발목 까지 직립하는 형태로, 제작 시기는 13~14세기로 추정된다(朴正會 2018: 89~95).



[도면 7] 2단계 묘역식분묘 및 출토유물(축척 부동)

- (1. 강화 석릉 주변 40호 석곽묘, 2. 강화 석릉, 3. 강화 곤릉, 4. 강화 석릉 주변 52호 석곽묘, 5. 태안 마도 3호선, 6. 강화 석릉 주변 54호 토광묘, 7. 강진 삼흥리 E지구 청자가마터)

동반 출토된 도기호 역시 태안 마도 3호선 출수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과 유사하므로, 52호 석곽묘는 13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다.

13세기 초엽에는 중형 묘역이 등장한다. I d2식 강화 석릉 주변 40호 석곽묘 내부에서 출토된 청자 화형전접시는 강화지역에 조성된 왕릉인 석릉(1237)과 곤릉(1239)에서 출토된 화형전접시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어 조성 시기는 13세기 초~중엽으로 추정된다. 또 2단계에서 확인되는 중형의 묘역은 곡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b·d형 석단만이 확인되고 있다.

중역의 묘역과, b·e형 석단이 처음 등장하는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은 강화지역 왕릉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유적으로, 40호 석곽묘에는 곡장과 3단의 석단 앞에 拜壇¹⁷⁾이 확인되고, 52호 석곽묘는 판석으로 축조되었으며, 54호 석곽묘는 화장묘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고려할 때 이들 분묘는 강화 천도기의 도읍 주변에 조성된 고위 총 관인의 분묘로 판단된다. 즉, 중형의 묘역과 b·e형식의 석단은 고위 관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강화로 천도함에 따라 남한지역에서도 함께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2세기 이전에는 개성 주변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매장주체부는 석실묘 1기, 판석조석곽묘 2기, 할석조석곽묘 13기, 회탄묘 2기, 토광묘 29기로 확인되어 토광묘가 주를 이룬다. 묘역식분묘는 남향과 서향의 가지능선에 주로 위치하며, 다수의 묘역식분묘가 함께 조성된 예가 많다. 유적 내 단독으로 조성된 경우 비슷한 시기 분묘 중 가장 상단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1기, 양광도에서 32기, 전라도에서 3기, 경상도에서 11기가 확인되었다. 경기에서는 I d2식인 파주 서곡리 1호묘(權準묘)가 조사되었다. 이는 관인분묘가 고려 전기부터 도읍인 개성 근처에 조성되는 것과 관련 있는 듯하다(김용선 2004: 172~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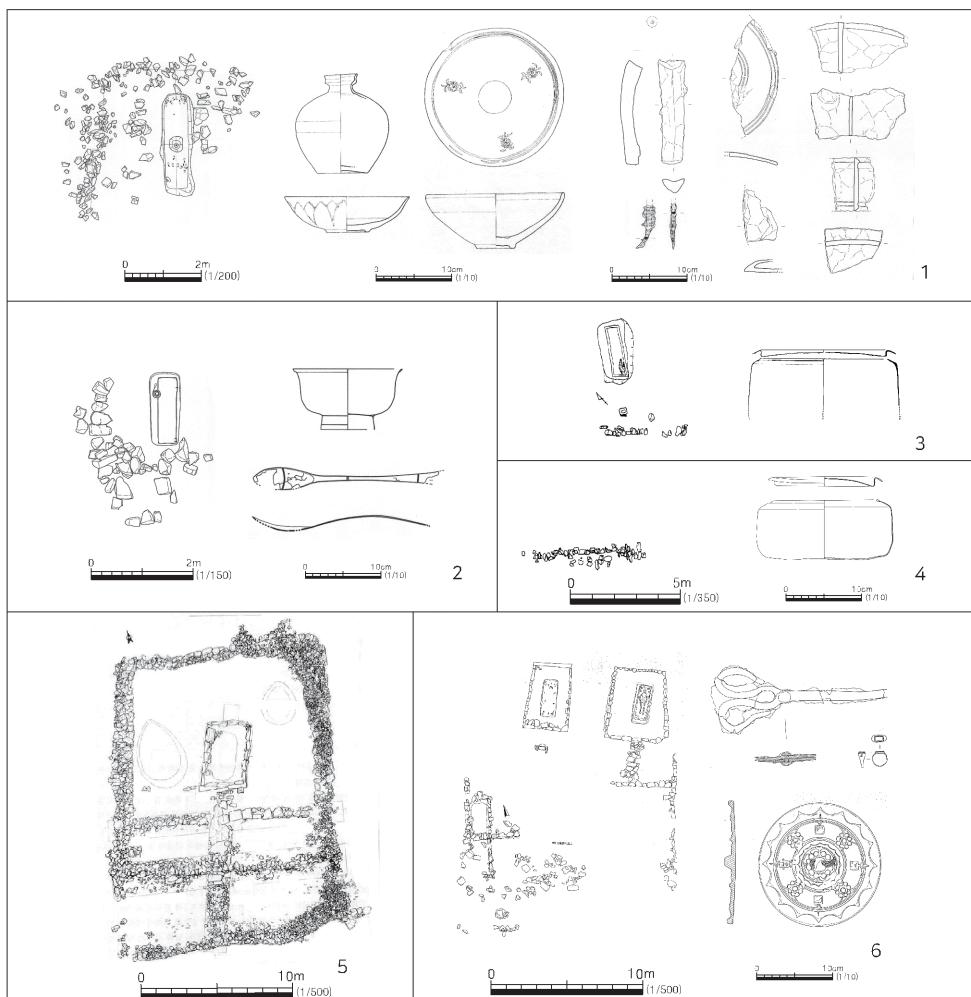
3) 3단계

3단계는 여말선초기인 14세기 후엽~15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탐라를 포함하여 전국에 묘역식분묘가 조성되며, 양광도와 함께 경상도에서 다수의 묘역식분묘가 확인된다.

17) 拜壇은 묘역식분묘 중 강화 석릉 주변 40호 석곽묘에서만 확인되며, 주로 고려 왕릉에서 확인되고 있다.

3단계 묘역식분묘는 총 44기로, I a1 · I a2 · I b1 · I b2 · I c2 · I d2 · I e2 · I e3 · II b1 · II b2 · II c1 · II d1 · II d2 · II e1 · II e2 · II e3식이 확인된다.

곡장이 있는 I식에서는 소형 면적이 점차 사라지는 양상이다. I d1 · I e1식은 14세기 중엽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I b1식 역시 15세기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I a1 · I c1식은 3단계에도 여전히 조성되는데, I a1식 안산 대부도 육곡 24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청자상감국판문대접은 도식화된 국화문이 14세기 후반의 특징을 가지며(남진주 2016: 64), I c1식 달성 본리리 나-29호에서도 외반한 구연과 결합흔이 없는 청동발이 출토되어 여말선초기로 편년되고 있다(孟洗煥 2018: 69~77). 반면 곡



[도면 8] 3단계 묘역식분묘 및 출토유물(축척 부동)

(1. 안산 대부도 육곡 24호 토광묘, 2. 달성 본리리 나-29호, 3. 충주 단월동 B지구 1호 토광묘,
4. 순창 운림리 농소고분, 5. 제주 하원동 1호분, 6. 화성 송나리 1호분)

장이 없는 Ⅱ식은 3단계에 모든 형식이 확인되고 있다.

석단 가운데 특히 e형의 석단은 2단계에서만 확인되는 I e1식을 제외하고, 모두 3단계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중 가장 이른 것은 Ⅱe2식 충주 단월동 B지구 1호 토광묘로 출토된 청동합이 여말선초기로 편년되는 순창 운림리 농소고분의 것과 동일하여 그 시기는 14세기 후엽~15세기로 편년된다.

3단계의 큰 특징은 새로이 대형의 면적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대형의 면적은 일부 왕릉과도 견줄 수 있는 크기로, 용인, 화성, 제주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대형의 면적은 I e3식과 Ⅱe3식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I e3식은 제주 하원동 분묘군에서만 3기가 확인되었다. 제주 하원동 분묘군은 도굴 등으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제주 내에서 왕자묘로 불리며, 넓은 묘역과 이국적인 문관석 등을 가지고 있어 1382년 명나라 주원장에 의해 제주에 유배된 원나라 위순왕의 아들 伯伯太子와 그 일가로 추정된다.¹⁸⁾ 백백태자의 아들 六十奴는 1390년, 백백태자는 1404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부인은 1444년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아¹⁹⁾ 하원동 분묘군의 조성시기는 14세기 후엽~1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Ⅱe3식 화성 송라리 고분군 1호묘 역시 매장주체부가 회탄묘이고, 여말선초부터 증가하는 이혈합장의 형태를 하고 있어 조성 시기는 14세기 후엽 이후로 추정된다(주영민 2013: 49).

매장주체부는 석실묘 4기, 할석조석곽묘 1기, 회탄묘 14기, 토광묘 25기로 확인되었다. 특히 할석조석곽묘가 감소하는 것과 함께 회탄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회탄묘가 할석조석곽묘를 대체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 2단계와 마찬가지로 남쪽 가지능선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이 사면부에서도 묘역식분묘가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양광도에 16기, 전라도에 1기, 경상도에 24기, 탐라에 3기가 분포하여, 3단계에는 양광도와 함께 경상도에서 다수의 묘역식분묘가 확인된다. 또 경상도에서는 매장주체부로 석실묘가 확인되는데, 묘역식분묘 내 석실묘 6기 중 4기가 3단계 경상도에서 확인되며, 그 중 2기에서는 벽화가 확인되었다. 묘역식분묘 내 벽화묘

18) 하원동 분묘 피장자에 관해서는 2호묘가 1·3호묘를 파괴하고 조성된 것을 볼 때, 피장자를 충렬왕 21년 (1295)에 정3품 雲麾上將軍에 임명된 고인단 집안과 원나라 지배 후기 원나라 관직인 정4품 萬戶에 임명된 文阿但不花의 집안으로 추정하기도 한다(金慶柱 2016: 144~148, 김봉찬 2013: 84~94). 그러나 하원동 분묘군의 묘역 면적은 왕릉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1·2품 관직 피장자의 묘역 역시 이보다 작으므로 본고에서는 피장자를 백백태자 일가로 추정하였다.

19) 『世宗實錄』103卷, 世宗 26年 3月 3日 癸丑.

중 하나인 권준 묘(정1품, 1352)가 2단계 경기에서 조성된 것을 볼 때, 3단계에는 개경 주변의 관인계층이 경상도로 디수 내려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III. 묘역식분묘의 위계

1. 왕릉과 일반묘와의 비교

고려시대 분묘 내에서의 묘역식분묘의 위계는 왕릉과 묘역시설이 없는 일반묘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왕릉은 당시의 가장 위계 높은 분묘 형태로, 고려 왕릉에서는 전기부터 묘역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이보다 위계가 낮은 묘역식분묘는 왕릉의 묘역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크기, 할석의 사용, 쌓는 방식 등에서 왕릉과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한편 묘역식분묘와 일반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묘역시설의 여부이다. 동일 형태의 매장주제부와 출토유물을 갖는 경우 묘역시설은 조성 시 더 많은 공력을 필요 하므로 두 분묘 간 약간의 위계 차이는 존재했을 것이다. 이는 묘역식분묘가 일반묘에 비해 상단부에 자리하거나,²⁰⁾ 묘광의 규모가 일반묘보다 묘역식분묘가 더 큰 경우²¹⁾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묘 중에서도 출토유물 상에서 묘역식분묘보다 위계가 높아 보이는 것도 존재한다.²²⁾ 이러한 분묘들은 출토유물이 없거나 도기류만이 부장되는 묘역식분묘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위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묘역식분묘와 일반묘의 위계는 단순히 상하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묘역시설 축조로 인한 공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피장자의 최하위 계층은 묘역식분묘가 일반묘보다 조금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반묘의 피장자를 크게 천민을

20) 그 예로 천안 남산리유적(國立公州博物館 1995), 청주 용담동 호미골유적(中原文化財研究院 2015), 고성 봉동리유적(부경문화연구원 2016), 남양주 지금동 Ⅱ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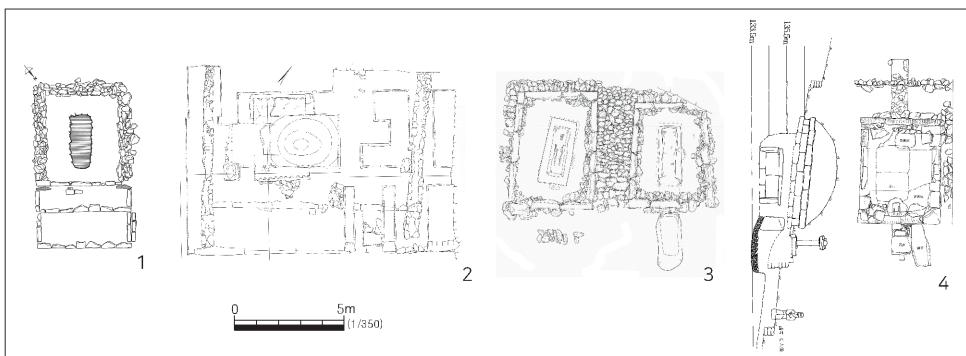
21) 묘역식분묘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일반 토광묘가 디수 확인된 강화 대신리 고려분묘군(기호문화재연구원 2019), 고양 더부골 분묘군(漢陽大學校·京畿道, 1993)에서는 묘역식분묘가 일반 토광묘보다 묘광의 규모가 대체로 크게 조성되었다.

22)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8), 안동 정하동 Ⅱ-23호 토광묘(안동대학교박물관 2000)는 모두 구릉의 능선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고급 기종으로 볼 수 있는 청자주자·전탁·타호·정병 등이 출토되었다. 또 화성 분천리 B-10호 토광묘(기호문화재연구원 2010)에서는 동경과 청동인장·비롯한 청자완,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은제약시 등이 출토되었는데, 조성연대는 12~13세기로 편년되며 해당 유적 묘역식분묘와 시기가 비슷하다.

제외한 모든 계층²³⁾이라 본다면,²⁴⁾ 묘역식분묘의 피장자는 무덤 조성에 공력을 투입 할 수 있는 사회지배계층인 중류층 이상이거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들로 파악 할 수 있다.

2. 묘역식분묘의 상대적 위계

다음으로 묘역식분묘 내에서 확인되는 상대적 위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위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왕릉과 관인분묘의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 위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왕릉과 관인분묘에서 보이는 계층 요소로는 장대석과 부석층, 묘역의 규모, 곡장, 호석, 석물 등이 있다.



[도면 9] 관인의 묘역식분묘(S=1/350)

- (1. 허유전 묘(강화 가락 허사중공 무덤), 2. 권준 묘(파주 서곡리 고려 벽화묘 1호묘), 3. 이만갑 부부묘, 4. 박익 묘(밀양 고벌리 벽화고분))

묘역식분묘의 호석과 석단은 주로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지만, 간혹 장대석을 사용한 경우가 확인된다. 장대석은 대형 할석을 한 차례 더 가공한 것으로, 할석을 사용한 분묘와 비교하면 묘역 조성 시에 상당한 공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또 『世宗實錄』에는 관인분묘에 가공석 사용을 금지하는 기사²⁵⁾가 있는데, 이는 당시 가공석 사용이 유행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장대석 역시 상위 위계 분묘에서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고려시대의 신분제도는 크게 왕족을 포함한 5품 이상 관인인 귀족층, 하급 관인과 서리, 남반, 향리 등의 중류층,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의 양민층 그리고 천민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갑동 2013: 238~239).

24) 인종 1년(1123)에 기록된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가난한 자들은 무덤을 만들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언급되어 있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자들이 분묘를 조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5) 『世宗實錄』 26卷, 世宗6年12月12日癸丑.

부석층은 분묘가 저승의 삶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삶의 공간 주변의 마당 또는 뜰에 박석, 부석을 깐 개념으로 쓸 수 있다. 곡장과 호석, 석단 외에 부가되는 시설로 일반적인 묘역식분묘보다 한 차례 더 공력을 사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석층은 강화지역 왕릉에서 모두 확인되며, 관인분묘, 벽화묘 등에서 주로 확인된다.

묘역의 규모는 경종 원년의 기사와 같이 피장자의 위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위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허유전 묘와 같이 정1품 관인의 분묘임에도 소형 면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²⁶⁾

곡장 또는 호석을 가진 분묘는 대부분 중형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호석과 함께 곡장과 석단을 모두 갖춘 경우 장대석 사용 유무나 부석층, 매장주체부 등 상위 형식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이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곡장과 호석은 필수시설은 아니지만, 그 유무는 동일 형식 내에 위계 차를 가늠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묘전 석물의 조성을 들 수 있다. 묘역식분묘에서 보이는 석물은 묘비석, 문인석, 석호, 향로석 등이 있다. 석물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왕릉에서 흔히 보이며, 조선시대에 들어 사대부 분묘에서 활발히 조성된다. 그러나 석물은 유실되거나 후대에 다시 조성되는 예가 많아 뒷순위 속성으로 삼았다.

이러한 특징들을 형식별 위계 차이의 기준으로 보았으며, 위계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각 단계에 따라 위계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 지역에 따라서도 위계 변화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매장주체부와 출토유물 등을 통해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려 한다. 앞서 마련된 각각의 기준들을 근거로 묘역식분묘의 계층적 요소들을 위계 따라 순서배열하면 [표 3]과 같다.

1단계에는 양광도 지역에서만 분묘가 확인되며, 모두 소형의 면적만이 확인되었다. 그 중 Ⅱ d1식 용인 마북리 7호묘에서는 부석층과 호석이 확인되므로, 가장 상위 형식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Ⅱ d1식 → I c1식 → I a1식 순으로 위계를 구분할 수 있다.

2단계에는 1단계 지역에서 벗어나 양광도 이남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26) 허유전 묘가 있는 강화지역은 13세기 강화천도를 전후로 하여 묘역식분묘가 축조되기 시작하는데,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조성되다 보니 석릉 주변 40호 석곽묘를 제외하면 모두 소형 면적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허유전 묘의 형태는 석릉 주변 고분군의 분묘 형태와 동일한데, 이 유적은 강화천도 시기 도읍 주변에 조성되는 관인 분묘군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2단계의 강화지역에서는 관인이라 하더라도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소형의 면적을 채택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묘역식분묘의 형식별 위치(※ 묘역 면적 : ● 중형, ◎ 대형)

형식	단계	지역	유적명	장대석	부석층	묘역 면적	곡장	호석	석물	매장 주체부
I a1	1	양광도	안산 대부도 육곡2 23호 토광묘				●			토광묘
			강화 대신리 묘역식분묘 3호				●			토광묘
			강화 대신리 묘역식분묘 4호				●			토광묘
	3	양광도	안산 대부도 육곡2 24호 토광묘				●			토광묘
			하남 덕풍동 9호 토광묘				●			토광묘
			경상도 창녕 초곡리 왕거분묘군5 1호 방형묘				●			토광묘
I a2	3	전라도	순창 운림리 농소고분	●	●	●	●			회단묘
I b1	2	경상도	안동 옥동 나~3호묘				●			토광묘
I b2	2	양광도	천안 남산리 1호 토광묘		●	●	●	●		회단묘
			안성 지문리 가지구 6호 토광묘			●	●	●		회단묘
	3	양평도	여주 매릉리 용강골 C-1호분	●		●	●	●		회단묘
			고성 신룡리 1호 방형묘	●		●	●	●		토광묘
I c1	1	양광도	안산 대부도 육곡2 9호 석곽묘				●			활석조
			화성 분천리 B구역 44호 토광묘				●			토광묘
	2	양광도	안산 대부도 육곡 3호 토광묘				●			토광묘
			안산 대부도 육곡 5호 토광묘				●			토광묘
	3	경상도	안동 성곡동 1 2호분				●	●		토광묘
			안동 옥동 나~7호묘				●	●		토광묘
I c2	3	양광도	청주 용담동 호미골 4호 토광묘		●	●	●			토광묘
I d1	2	양광도	강화 가락 하시중공 무덤(허유전 묘)	●		●			●	활석조
			인천 검단 Ⅱ-1지점 4호 석곽묘				●			활석조
			강화 대신리 묘역식분묘 2호				●			토광묘
			강화 석릉 주변 45호 토광묘				●			토광묘
	3	경상도	고성 봉동리 등촌 분묘 5호		●		●	●		토광묘
I d2	2	경기	파주 서곡리 1호묘(건준 묘)	●		●	●		●	석실묘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40호 석곽묘	●		●	●			활석조
	3	양광도	남양주 지금동2 가지구 1호 토광묘			●	●	●		토광묘
			진주 사곡리 1호 방형묘	●	●	●	●	●		회단묘
			하동 우복리 고분			●	●	●		석실묘
I e1	2	양광도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52호 석곽묘	●			●		●	판석조
			강화 석릉 주변 53호 석곽묘	●			●			활석조
	3	경상도	안동 옥동 나~8호묘				●			토광묘
			달성 본리리 Ⅳ-나지구 29호 토광묘				●			토광묘
I e2	3	경상도	화성 일리원시리 1호 고분			●	●			회단묘
			밀양 고법리 벽화고분(박익 묘)	●	●	●	●	●	●	석실묘
			의령 경산리 10호묘	●	●	●	●			회단묘
			안동 인막동 5호묘			●	●			토광묘
	3	탐라	제주 하원동 1호분	●	●	◎	●	●	●	토광묘
			제주 하원동 2호분	●		◎	●	●		토광묘
			제주 하원동 3호분	●		◎	●	●		토광묘
II b1	2	양광도	강화 석릉 주변 54호 석곽묘				●			판석조
			고양 더부글 석곽묘				●			활석조
			인천 검단 Ⅱ-5지점 방형분				●			토광묘
			강화 석릉 주변 48호 석곽묘							활석조
			고양 더부글 47호 토광묘							토광묘
			고양 더부글 65호 토광묘							토광묘
			안산 대부도 육곡 4호 토광묘							토광묘
			안산 대부도 육곡2 29호 토광묘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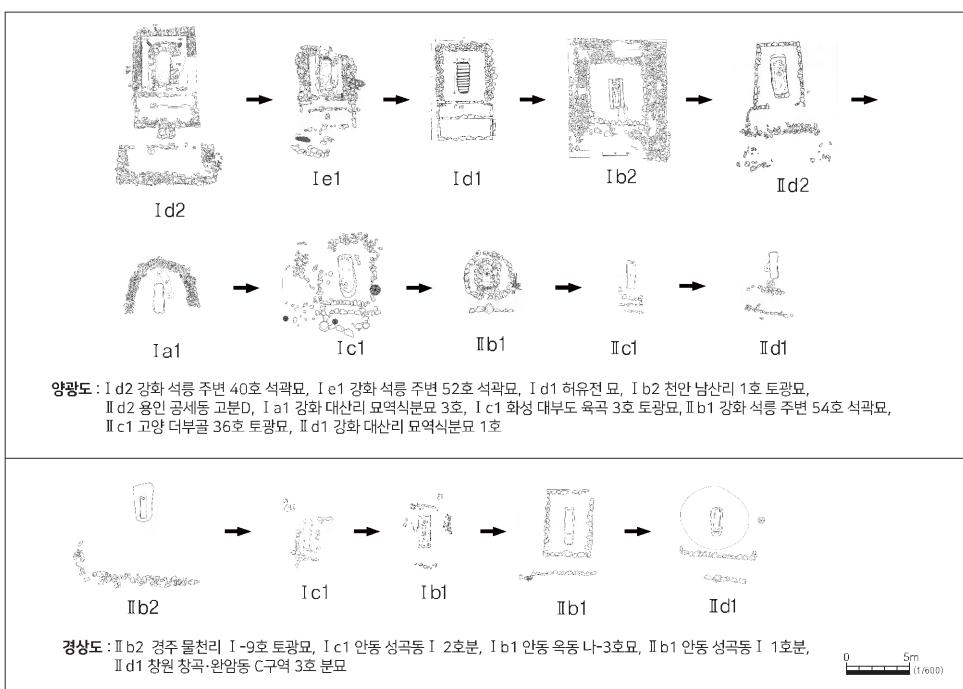
형식	단계	지역	유적명	장대석	부석총	묘역 면적	곡장	호석	석물	매장 주체부	
Ⅱ b1	2	양광도	음성 양덕리 3-1지점 1호 석곽묘							활석조	
			화성 우음도 66호 토광묘							토광묘	
		전라도	무주 공진리 다지구 1호묘							활석조	
			안동 성곡동 1-1호분				●			토광묘	
			창원 창곡·완암동 C구역 1호 분묘				●			토광묘	
	3	경상도	창원 창곡·완암동 C구역 7호 분묘				●			토광묘	
			경주 물천리 1-6호 토광묘				●			토광묘	
			김해 죽곡리 2호묘							토광묘	
			남양주 호평 3지구 5호분					●		토광묘	
			안산 대부도 육곡 3호 석곽묘							활석조	
	Ⅱ b2	경상도	안산 대부도 육곡2 30호 토광묘							토광묘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	●	●		●			석실묘	
			고성 봉동리 등촌 분묘 9호		●					토광묘	
			안동 정하동 Ⅱ-22호				●			회탄묘	
			봉화 금봉리 16호 토광묘				●			토광묘	
			울산 달천 가-2호분				●			토광묘	
			창녕 우강리 고려시대 4호묘							토광묘	
Ⅱ b1	3	경상도	창녕 초곡리 왕거분묘군 Ⅴ-17호 토광묘							토광묘	
			청도 방지리 Ⅰ-구역 7호 토광묘							토광묘	
Ⅱ c1	2	양광도	경주 물천리 1-9호 토광묘			●				토광묘	
			남양주 지금동 이만간 부부묘	●	●	●	●	●		회탄묘	
	3		충주 단월동 B지구 4호 토광묘			●				토광묘	
			안동 정하동 Ⅱ-5, 6호			●				토광묘	
	Ⅱ d1		고양 더부골 36호 토광묘				●			토광묘	
			고양 더부골 41호 토광묘							토광묘	
			안산 대부도 육곡 1호 석곽묘							활석조	
			안산 대부도 육곡 4호 석곽묘							활석조	
			안산 대부도 육곡2 13호 토광묘							토광묘	
			안산 부곡동 서4호 움무덤							토광묘	
			용인 마북리 8호묘							활석조	
Ⅱ e1	3	전라도	무안 학산리 신학동 1호 석곽묘							활석조	
			진안 수천리 1호 석곽묘							활석조	
Ⅱ d2	1	양광도	용인 미북리 7호묘		●			●		활석조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33호 석곽묘							활석조	
	2	양광도	강화 대산리 묘역식분묘 1호							토광묘	
			창원 창곡·완암동 C구역 3호 분묘							토광묘	
Ⅱ e2	3	경상도	합천 중산동 고려석실	●	●			●		석실묘	
			봉화 금봉리 2호 토광묘							토광묘	
	2	양광도	용인 공세동 고분D			●		●		토광묘	
Ⅱ e3	3	경상도	울산 달천 가-1호분		●	●	●	●		회탄묘	
			진주 사곡리 7호 분묘			●				회탄묘	
	3	양광도	남양주 호평 3지구 6호분						●	회탄묘	
Ⅱ e2	3	경상도	청녕 우강리 고려시대 3호묘							토광묘	
			성남 판교동 방형 구획 토광묘	●	●	●				회탄묘	
			용인 공세동 고분A			●		●	●	회탄묘	
	3		충주 단월동 B지구 1호 토광묘			●			●	회탄묘	
			청도 방지리 Ⅰ-구역 1호 회과묘			●				회탄묘	
Ⅱ e3	3	양광도	화성 송라리 1, 1-1호분	●		◎		●		회탄묘	

먼저 경기에서는 정2품 권준 묘 1기만이 확인되었다. 2단계의 I d2식이며, 매장주체 부는 벽화가 있는 석실묘이다.

양광도에서는 새로이 중형 묘역이 등장하며, I d2식인 강화 석릉 주변 40호 석곽묘에서 장대석의 석단이 확인되고, 곡장과 부석층이 확인되어 가장 상위 위계로 파악된다. 한편 II d1식에서는 어떠한 시설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낮은 위계로 평가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I d2식 → I e1식 → I d1식 → I b2식 → II d2식 → I a1식 → I c1식 → II b1식 → II c1식 → II d1식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 정1품 허유전 묘는 I d1식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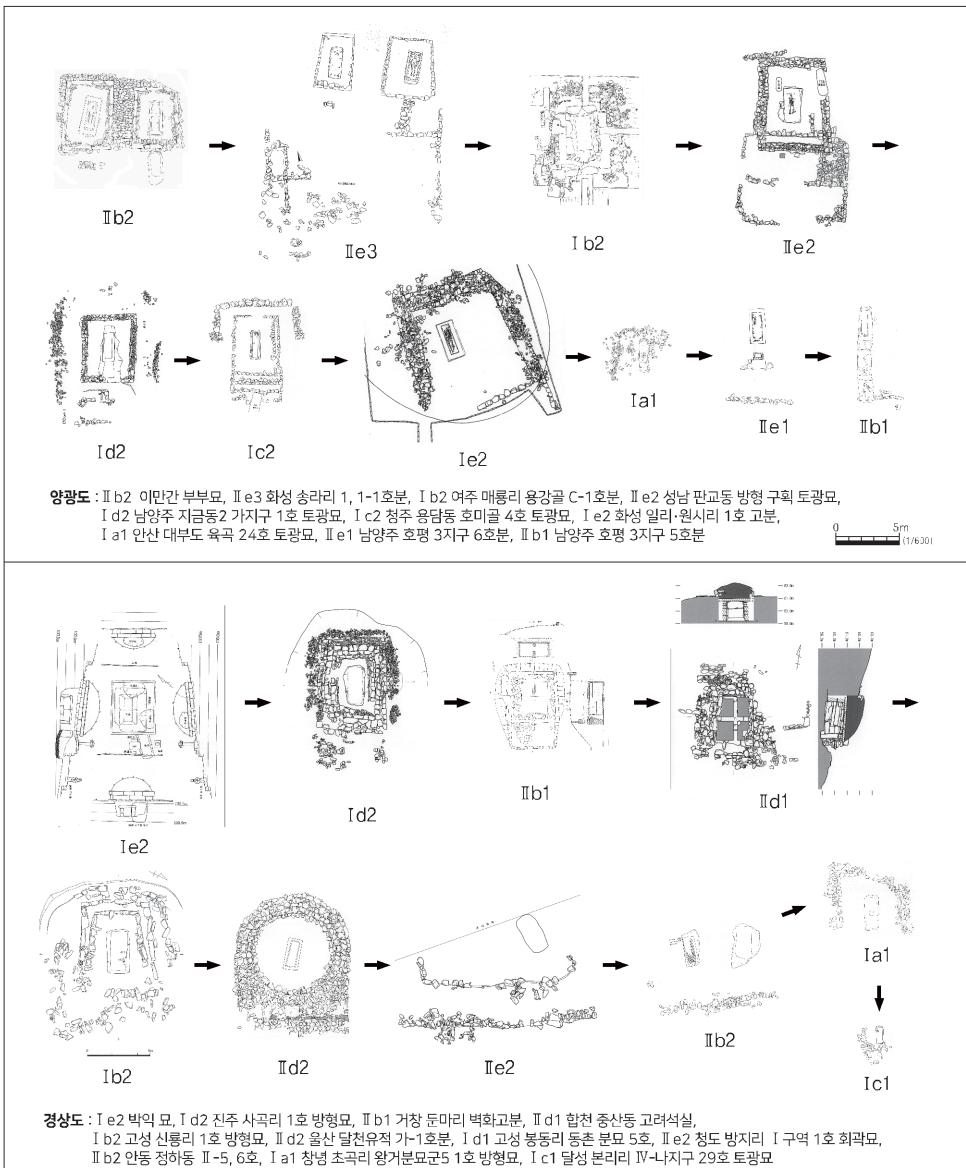
전라도에서는 2단계에 II b1 · II c1식이 확인되는데 분묘 수는 많지 않으나 II b1식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그 순은 상대적으로 II c1식 → II b1식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경상도에서는 중형 묘역인 II b2식의 경주 물천리 I -9호 토광묘가 확인되어 가장 상위 형식으로 보았으며, II d1식에서는 계층 요소가 확인되지 않아 하위 형식으로 보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II b2식 → I c1식 → I b1식 → II b1식 → II d1식 순으로 정리된다.



[도면 10] 2단계 묘역식분묘의 형식별위계(S=1/600)

3단계에는 탐라를 포함한 전국에서 묘역식분묘가 확인된다. 먼저 양광도에서는 II b2식의 이만간 부부묘에서 장대석의 호석과 부석층, 석물들이 확인되어 가장 위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II e3식인 화성 송라리 1호분은 대형의 묘역을 가지며 장대석을 사용한 호석과 석물이 확인되어 그 다음으로 위계가 높다고 보았다. 또 II e1 · II b1식에서는 석물만이 확인되는데, 매장주체부가 II e1식에서는 회탄묘, II b1식에서



[도면 11] 3단계 묘역식분묘의 형식별위계(S=1/600)

는 토팽묘가 확인되어 그 위계는 Ⅱ e1식→Ⅱ b1식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Ⅱ b2식→Ⅱ e3식→I b2식→Ⅱ e2식→I d2식→I c2식→I e2식→I a1식→Ⅱ e1식→Ⅱ b1식의 순서로 구분할 수 있다.

전라도에서는 I a2식인 순창 운림리 농소고분이 유일하며 매장주체부는 회탄묘이다.

경상도에서는 I e2식의 종1품 박익 묘가 묘역식분묘 중 유일하게 계층 요소를 모두 갖춘 형태로 확인되어 가장 상위 형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곡장만이 확인된 I c1식은 가장 하위 형식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I e2식→I d2식→Ⅱ b1식→Ⅱ d1식→I b2식→Ⅱ d2식→Ⅱ e2식→Ⅱ b2식→I a1식→I c1식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탐라에서는 3단계에 대형의 면적을 가진 I e3식이 하원동 분묘군에서만 확인되었는데 3기 모두 장대석을 사용한 호석과 함께 곡장을 갖춘 형태이다.

이상에서 묘역식분묘는 계층 요소를 기준으로 각 형식 간의 상대적인 위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상위 형식에는 I d2·I e2·Ⅱ b2식이 있으며, 하위 형식은 Ⅱ b1·Ⅱ c1·Ⅱ d1식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단계의 I d1·I d2식, 3단계의 I e2·Ⅱ b2식은 피장자가 5품 이상의 관인으로 확인되어, 해당 시기의 상위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단계에 들어서면서는 곡장이 없는 Ⅱ 형이 점차 상위 형식으로 변화한다. 양광도에서는 Ⅱ b2·Ⅱ e3식이 최상위 형식으로 확인되며, 경상도에서도 Ⅱ b1·Ⅱ d1·Ⅱ d2식이 중상위 형식으로 확인되었다.

또 묘역식분묘는 단계마다 등장하는 중·대형의 형식들이 대체로 해당 시기의 상위 위계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단계 양광도의 I d1·I e1식은 중형 분묘보다도 상위로 확인되는데, 이들 분묘는 모두 강화지역에 위치한다. 이는 강화 천도 이후 섬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조성된 탓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단계의 경상도에서도 Ⅱ b1·Ⅱ d1식이 중형의 형식보다 상위 위계로 나타나는데, 경종 원년 품계별 묘지를 규정한 이후 조선 태종대(1404·1418)에 기준의 墓界를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보아,²⁷⁾ 여말선초기에 묘역 조성이 규제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 위계에 따라 묘역식분묘의 매장주체부를 살펴보면 1단계에는 할석조석곽묘가 상위 묘제로 쓰였고, 2단계에는 석실묘와 판석조석곽묘, 할석조석곽묘가 상위 묘제로 쓰였다. 하지만 할석조석곽묘는 위계와는 상관없이 2단계 전반에 걸쳐 사용

27) 『太宗實錄』7卷, 太宗 4年 3月 29日 庚吾.

『太宗實錄』35卷, 太宗 18年 5月 21日 庚吾.

된 것으로 보인다. 회탄묘는 2단계 말부터 등장하여 상위 형식을 중심으로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토광묘는 주로 중·하위 형식의 매장주체부로 쓰인다. 3단계에는 석실묘와 회탄묘가 상위 형식의 매장주체부로 쓰이고, 토광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중·하위 형식에서 많이 쓰이지만, 상위 형식에서도 확인되어 계층을 불문하고 사용된 가장 보편적인 묘제였음을 알 수 있다.

IV. 사회적 배경과 지역별 특징

1. 묘역식분묘 조성의 사회적 배경과 피장자의 성격

고려 전기부터 개성을 중심으로 조성되던 묘역식분묘는 남한지역에서 12세기 부터 점차 등장하기 시작한다. 12세기는 문벌귀족의 권세가 높아지며, 이자겸의 난(1122)과 묘청의 난(1135)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이다(김갑동 2013: 66 ~76). 한편 지방에서는 신라말 호족으로부터 이어진 향리가 지방의 통치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며, 그중 가장 상위계급인 호장충이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층이었다.²⁸⁾ 그러나 예종 1년(1106) 기준에 향리의 지배를 받던 군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監務²⁹⁾를 파견하였고, 이후 上戶長제³⁰⁾를 신설하여 향리들을 더욱 통제하고자 하였다(강은경 2002: 66~138, 李勛相 1985: 315~324).

이 시기 중앙 관인들은 그들의 매장지를 도읍인 개경 주변으로 정하였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망하여도 매장지는 개경 주변으로 하였다(김용선 2004: 173~178). 따라서 양광도에서 확인되는 묘역식분묘는 위치상 관인이 아닌 향리의 분묘로도 볼 수 있겠으나, 기준에 묘역시설 없는 할석조석곽묘를 주묘제로 쓴 향리충(고인해 2019: 65~70)이 이 시기 새롭게 묘역시설을 부가한다는 것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 시기 묘역식분묘의 피장자는 중앙의 관인 출신 중 정치적 혼란을 피해 낙향한 자로

28) 현종 9년(1018)에 제정된 지방 호장의 복색이 중앙 문관 4품 이상에 준하는 자색 공복인 것을 보아 호장충의 위세를 가늠할 수 있다(강은경 2002: 131~138).

29) 감무는 고려시대 군·현에 파견된 관직으로, 조세와 역의 수취를 담당했다. 이후 조선 태종대(1413)는 縣監으로 개칭된다.

30) 상호장은 향리를 통제하기 위한 관직으로 호장충 내에서 선출되었으며, 호장의 우두머리 격으로 首戶長으로 불리었다.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 무신정권 이후로 낙향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며(김용선 2004: 172~178), 용인 마북리 7호묘의 경우 왕릉과 관인분묘에서 주로 보이는 부석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2단계인 13세기~14세기 중엽은 역사적으로 무신정권과 원간섭기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 정치적 혼란은 이전보다 더욱 가중되었다. 지배계층인 문벌귀족과 원간섭기의 권문세족은 음서제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불법적인 토지 축적을 통해 농장을 이루었으며, 면세·면역 특권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를 쌓았다(김갑동 2013: 88~94). 지방에는 더 많은 감무가 파견되었고, 원과의 전쟁 등으로 향리들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작아졌다. 또 권문세족들의 농장 확대로 인해 부역하는 백성이 줄자 이는 고스란히 지방 수취를 담당하는 향리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이에 鄉役에서 벗어나고자 중앙 관직으로 나아가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강은경 2002: 155~175).

이처럼 중앙 정계의 정치적 격변과 전쟁 등의 외적 충격으로 인해 중앙에 근거하던 관인들이 그들의 본관지로 낙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은 지역 내 士族을 형성하였는데, 사족은 관인과 그들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다. 무신정권 이후 사족들은 그들의 지배력이 미치는 군현에 정착하며 재지화되고, 호장을 대신해 향촌사회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는다(김당택 1997: 280~287).

이러한 양상은 묘역식분묘의 전개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단계에 나타나는 각 지역의 묘역식분묘는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수가 대폭 증가하며, 그 형식 또한 다양해진다. 이는 지방으로 낙향한 사족들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형식별 위계 차이는 사족의 품계 및 가문의 위계 차이에 따라 발생했을 가능성 있다. 그러나 하위 위계의 경우 품계가 낮은 사족이거나 관인분묘에서 영향을 받은 호장총의 분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호장총은 13세기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면서 고려 말에는 7품 이상 준하는 녹색 공복으로 바뀌게 된다(강은경 2002: 175~186). 이로 보아 호장총이 이 시기 상위 위계의 묘역식분묘를 조성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3단계인 14세기 후엽에서 15세기 중엽은 소위 ‘여말선초기’에 해당한다. 공민왕의 반원정책으로 자주적인 고려를 세우려 노력하였으나, 신진사대부의 지지를 받은 이성계에 의해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하게 된다. 또 지방의 사족들은 조선이 건국한 이후 兩班이 되었으며, 사족이 되지 못한 吏族들은 중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崔異敦 2010: 59~66).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에게 대항하여 새롭게 부상한 정치세력으로, 주로 하급관료나 지방 향리의 자제들이었다. 이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성장하는데, 성리학과 함께 도입된『朱子家禮』는 분묘 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자가례의喪禮에는 회, 모래, 목탄으로 무덤을 조성한다는 내용³¹⁾이 있으며, 이는 곧 회탄묘 조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趙明來 2007: 39~42). 또 14세기대에 동일 가문 분묘들을 한 묘역 내에 조성하는族墳의 증가 역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한 성리학의 이념과도 관련이 있다(김용선 2004: 188~197). 이에 따라 묘역식분묘에서도 새로이 회탄묘가 대세를 이루었고, 매장지는 고향을 따라 지방에 두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와 함께 묘역식분묘의 피장자는 성리학에 영향을 받은 신진사대부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묘역식분묘는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도 15세기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고려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조선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료 1) 경종 원년(976년) 2월 문무 양반의 墓地를 정하였다. 1품은 사방 90步, 2품은 80보로 하고 봉분의 높이는 모두 1丈 6尺으로 하였다. 3품은 70보에 높이는 1장으로 하며, 4품은 60보, 5품은 50보, 6품 이하는 모두 30보로 하고, 높이는 8척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³²⁾

사료 2) “1품의 墓地는 90보 平方에, 四面이 각각 45보이고, 2품은 80보 평방, 3품은 70보 평방, 4품은 60보 평방, 5품은 50보 평방, 6품은 40보 평방이며, 7품에서 9품 까지는 30보 평방이고, 庶人은 5보 평방인데, 이상의 步數는 모두 周尺을 사용한다. 四標 안에서 耕作하고 나무하고 불을 놓는 것은 일절 모두 금지한다.” 하였으니, 前朝文王 37년에 정한 제도를 쓴 것이다.³³⁾

사료 3) “……문무 양반 각 품의 묘지 步數도 또한 심히 협착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중실 1품의 묘지는 4면을 각각 1백 보씩으로, 2품은 90보씩으로, 3품은 80보씩

31) 『朱子家禮』卷6 壽禮三.

32) 『高麗史』卷85, 志39, 刑法2, 禁令.

33) 『太宗實錄』7卷, 太宗 4年 3月 29日 庚吾.

으로, 4품은 70보씩으로 하고, 문무 양반의 묘지는 1품은 4면을 90보씩으로, 2품은 80보씩으로, 3품 이하는 또한 각각 정한 보수에다 한 배를 더하여 한계를 정하고, 아울러 人戶에서 1백 보 안에는 안장하지 말게 하소서.”³⁴⁾

사료 1)은 경종 원년(975)에 관인의 묘지수를 규정한 내용이며, 사료 2)를 통해 문종 37년(1083)에 기준의 분묘보수를 정비하였고, 조선 태종 4년(1404)까지 이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사료 3)은 태종 18년(1418)에 태종 4년의 분묘보수가 다소 협소하여 품계별 보수를 늘리자는 것으로, 이는 고려 전기와 조선 초기의 기준칙이 서로 달라 문무 양반의 묘지가 협소해진 것으로 보인다(李宗奉 1999: 27~31). 또 세종 대에 석실과 연마석 사용 등을 금하는 규정³⁵⁾ 등이 정해지면서 점차 조선만의 양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6~17세기대에 주로 보이는 Ⅱb식, Ⅱd식, Ⅱe식 등이(東西文物研究院 2003, 慶南發展研究院 2004, 畿甸文化財研究院 2011, 경인문화재연구원 2013, 동국문화재연구원 2016, 기호문화재연구원 2018,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8, 慶南研究院歷史文化센터 2021, 경상문화재연구원 2021) 조선 사대부들의 분묘로 정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묘역식분묘의 분포양상과 지역별 특징

묘역식분묘의 위치는 주로 수계 주변에 자리하는데, 이는 고려시대 驛路, 潛運路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역로는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으로 전기부터 전국에 22역로를 설치해 운용하였으며, 이는 조선시대까지 존속된다. 역로는 개경과의 왕래를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되는데, 수로 역시 역도 편성에 중요 고려 대상이었다. 또 중앙정부의 界首官제³⁶⁾나 주·군현의 행정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로 大邑을 중심으로 역로가 마련되었다(鄭軒根 2008: 49). 해안을 따라서도 대읍 주변에 潛倉³⁷⁾이 설치되고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로가 개설되어

34) 『太宗實錄』 35卷, 太宗 18年 5月 21日 庚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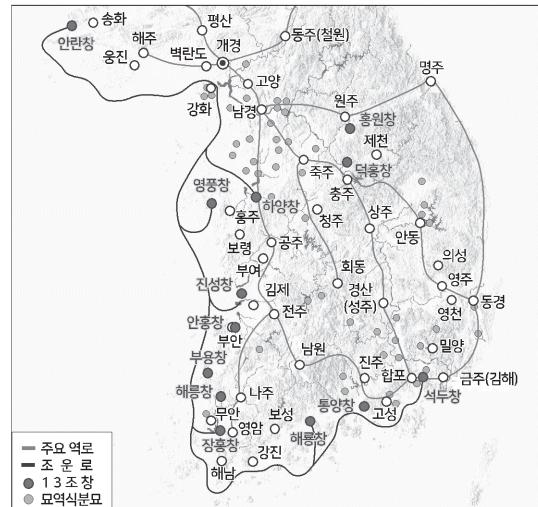
35) 『世宗實錄』 26卷, 世宗 6年 12月 12日 癸丑.

36) 지방행정 단위 또는 주현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대읍에 파견된 수령을 계수관이라 하였으며, 여러 속현을 관掌하여 지방행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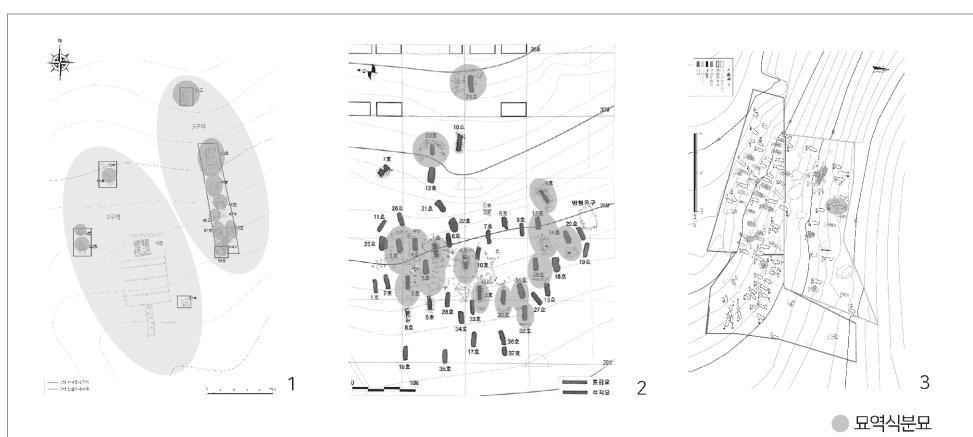
37) 조창은 고려·조선에서 조세로 거둔 현물을 모아 보관하고 이를 중앙에 수송하기 위해 水路 연변에 설치한 창고 및 이 일을 담당하던 기관을 말한다. 이는 세곡의 수납·보관·운송 기능을 하였다.

개경으로의 세곡 운송이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교통로는 도읍과 지방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형을 따라 설치되었으며, 영향력이 높은 대읍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묘역식분묘 역시 지방의 대읍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쉽게 미치는 교통로를 따라 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묘역식분묘는 지역에 따라서도 조성 수와 위계의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양광도에 위치한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과 안산 대부도 육곡 고분군은 모두 섬에 조성된 유적으로, 다수의 묘역식분묘가 군을 이루는 공통점이 있다. 두 유적의 중심시기는 13세기대로, 원과의 전쟁 시 섬과 산성으로 피신하라는 해도 입보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면 12] 고려시대 교통망과 조창(Qgis)



[도면 13] 양광도 도서지역 유적 유구배지도(축척 부동)

(1.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S=1/2,500), 2. 안산 대부도 육곡 고분군(S=1/1,200), 3. 화성 우음도유적(S=1/2,000))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에서는 상위 형식인 I d2식과 판석조석곽묘를 가진 I e1식이 확인되고 왕릉 주변에 위치하며 장대석, 부석층 등의 시설이 확인되므로, 강도

시기 도읍 주변으로 형성된 관인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안산 대부분도 육곡 고려 고분군에서는 하위 형식인 I c1식과 II c1식이 주로 확인되며, 매장주체부는 할석 조석곽묘와 토광묘이다. 대부분은 대몽항쟁기에 주변의 仁州 · 南陽 · 安山 등지에서 주민들이 이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유적이 14세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보아 이 주민들이 그대로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다(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310~313). 따라서 이 분묘군의 묘역식분묘 피장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사족들로 보이지만, 중앙 귀족층보다는 하위 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화성 우음도유적에서는 110기나 되는 고려시대 분묘가 밀집한 형태로 조사되었는데, 유적 내 묘역식분묘는 하위 형식인 II c1식 단 1기만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동일 정책으로 조성된 삼 지역 유적이라 할지라도 조성 집단의 성격에 따라 묘역식분묘의 수와 형태가 달리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부터 묘역식분묘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전라도와 경상도는 묘역식분묘의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조선 초 『世宗實錄 地理志』를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亡姓³⁸⁾이 거의 없던 지역으로 파악된다. 이는 고려 후기 지역 내 호장충이 안정되어 있어, 중앙진출이 활발했다는 것을 뜻한다.³⁹⁾ 그런데도 두 지역 간의 묘역식분묘 조성 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훈요 8조의 간접적 영향(이재범 2012: 266~271)이거나 또는 다양한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전라도지역이 무인집권자들의 농장 확대, 원나라 와의 전쟁, 왜의 침탈 등으로 주요 수탈 대상지가 되면서 그 지역 사족 및 호장충이 묘역식분묘를 조성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경상도의 경우 영남 사립파의 예처럼 조선까지 이어지는 재지사족의 성장으로 두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극명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경상도에서는 전라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묘역식분묘가 조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탐라는 원간섭기에 원나라 군사가 주둔하며, 동아시아로의 지배력 확장을 위한 군수산업기지와 물류생산지로 활용되었다. 이후로는 원에서 온 이주민과 원 왕실 후손의 유배지로서 그들의 생활 터전이 되었다(강만익 2016: 70~83). 여말선초기에 조성된 하원동 분묘군은 모두 대형의 묘역을 갖추었고, 판석을 이용한 호석을 갖는 등 육지와도 비교되는 상위 계층의 무덤이 조성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피장자는 백백태

38) 망성은 호장충의 지역 간 이동 및 관직으로 나아가지 못해 사라진 성씨를 말한다.

39) 고려 후기에 관직으로 나아간 성씨는 경기도가 28개, 충청도가 36개, 전라도는 48개, 경상도는 91개이다(李樹建 1984: 343~344).

자의 일가라 판단되며, 원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탐라 내에서의 그들의 위상이 분묘의 위계로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한지역에 위치한 교주도와 동계에서는 현재까지 묘역식분묘가 조사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지형이 혐해 생산성이 떨어져 호장충이 세력 기반을 다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려 후기에 망성을 이 가장 높고 중앙 진출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강은경 2002: 263~275).

V. 맷음말

분묘는 매장 당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고고학 자료이다. 그중에서도 고려시대 분묘는 이전 시기와 달리 새로이 묘역시설이 부가됨에 따라 분묘의 형태와 의미가 더욱 다양해졌다. 당시의 고려는 묘역의 규모를 품계에 따라 규제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묘역시설의 규모와 형태도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본고에서는 묘역시설이 있는 고려시대 분묘를 '묘역식분묘'라 따로 구분하여 그 성격과 위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묘역식분묘는 고려 건국 이후 도읍인 개성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것이 12세기 이후 남한지역으로 점차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13세기 이후로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후 여말선초기를 거치며 묘역식분묘가 상위 계층의 묘제로 자리 잡으면서 조선의 사대부를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

또 묘역식분묘의 시설물은 왕릉의 것과 유사하지만 규모나 석재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묘역시설이 없는 일반묘와 비교해서는 뚜렷이 상하관계를 구분할 순 없었으나 피장자의 최하위 계층은 일반묘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묘역식분묘 내에서도 장대석, 부석충, 묘역 규모, 곡장과 호석, 석물 등을 통해 상대적인 위계가 구분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보이는 상위 형식은 I d2 · I e2 · II b2 식이며, 하위 형식으로는 II b1 · II c1 · II d1식으로 파악되었다. 또 주로 중대형의 묘역이 상위 형식으로 자리한다.

묘역식분묘의 피장자는 대체로 중앙으로부터 낙향한 관인충으로 추정되며, 지방에서 사족으로서 그 세력을 키운 자들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로 보이는 하위 위계의 묘역식분묘는 해당 지역의 향리충의 분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묘역식분묘는 역로, 조운로와 같은 교통망 주변 대읍에 위치하는 특징이 보인다. 지역별로 양광도의 도서지역 유적은 조성집단에 따라 묘역식분묘의 위계가 다르게 나타나며, 전라도는 훈요 8조의 간접적 영향과 주요 수탈 대상지로서 경상도와 비교하여 묘역식분묘 조성 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탐라에서는 원의 위상이 분묘에 반영되어 대형 묘역이 확인되며, 교주도와 동계는 척박한 토지로 인하여 제지세력 성장이 둔하여 묘역식분묘 조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묘역식분묘를 기준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묘역식분묘의 조사 예가 부족한 전라도, 교주도, 동계 지역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 연구가 남한지역에 국한되다 보니 고려시대의 전반적인 묘역식분묘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본 고는 필자(2022)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투고일 2023. 1. 3 | 심사완료일 2023. 1. 20 | 계재확정일 2023. 1. 30

참고문헌

- 『高麗史』.
- 『宣和奉使高麗圖經』.
- 『世宗實錄』.
- 『朱子家禮』.
- 『太宗實錄』.
- 강만익, 2016, 「고려 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8, 『東海三和洞 高麗古墳』.
- 강은경, 2002, 『高麗時代 戶長層 研究』, 혜안.
- 慶南發展研究院, 2004, 『昌寧 友江里古墳群』.
- 慶南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21, 『합천 중산동 고려석실』.
- 정상문화재연구원, 2021, 『고성 봉동리 산204-2번지 유적』.
- 경인문화재연구원, 2013, 『포천 삼경리유적』.
- 고인해, 2019, 「경기지역 고려시대 석곽묘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國立公州博物館, 1995, 『天安 南山里 高麗墓』.
- _____ , 2004, 『康津 三興里 窯址 』.
- 國立中央博物館, 2015, 『康津 龍雲里 靑磁窯址 發掘調查報告書』.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태안 마도 3호분』.
- 畿甸文化財研究院, 2011, 『南洋州 好坪·坪內 宅地開發地區內 文化遺蹟 試·發掘調查報告書』.
-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華城 汾川里遺蹟』.
- _____ , 2018, 『제주 노형동 산19-3 유적』.
- _____ , 2019, 『인천 강화 도로-간 문화유적-강화 대신리 고려분묘군』.
- 김갑동, 2013, 『고려시대사 개론』, 혜안.
- 金慶柱, 2016, 「考古資料로 살펴 본 元과 悉羅」, 『悉羅文化』5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당택, 1997, 「高麗後期의 '士族'과 '士大夫'」, 『全南史學』제11집, 全南史學會.
- 김봉찬, 2013, 『濟州島 麗末鮮初 墳墓 研究』,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협, 2007,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선, 2004, 『고려 금석문 연구』, 일조각.
- 김용성, 2013, 「신라 능원의 의의」, 『民族文化論叢』第53輯.
- 김유정·손명철, 2007,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 김은경, 2014, 「高麗時代 瓷枕(瓷器베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喜靜, 2014, 「15世紀 慶南地域 白磁의 變遷過程과 特徵」,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남진주, 2016, 「高麗後期 墳墓 出土 陶磁의 特徵」, 『陶藝研究』제25호,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 동국문화재연구원, 2016, 『淸道 邊자리 조선시대 분묘군』.
- 東西文物研究院, 2003, 『晉州 沙谷里遺蹟 』.
- 孟洗煥, 2018, 「고려~조선 전기 분묘 출토 청동발의 특징과 편년」,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朴正會, 2018, 「高麗時代 火爐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부경문화연구원, 2016, 『古城 凤東里 東村遺蹟』.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고려의 무덤』, 진인진.
-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 정하동 유적』.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2011,『安山市史』.
- 李樹建, 1984,『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 이원정, 2022,「고려시대 묘역식분묘의 성격과 위계 –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문화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범, 2012,「고려 태조의 훈요 제 8조에 대한 연구—‘차현이남 공주강외’지역에 관한 해석-」,『난국학연구』26, 고조선단국학회.
- 李宗奉, 1999,「高麗時代 度量衡制 研究—結負制와 관련하여-」, 釜山大學校 大學院博士學位論文.
- 李勣相, 1985,「高麗中期 鄉吏制度의 變化에 대한 一考察」,『東亞研究』6권,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 李義仁, 2004,「中部地方 高麗古墳의 流刑과 階層」,『韓國上古史學報』第45號, 韓國上古史學會.
- 이희인, 2003,「중부지방 고려시대 고분연구-석곽묘와 토광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4,「中部地方 高麗古墳의 流刑과 階層」,『韓國上古史學報』第45號,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07,「京畿地域 高麗古墳의 構造와 特徵」,『고고학』6호, 중부고고학회.
- 任鶴鐘, 2008,「新石器時代의 무덤」,『韓國新石器研究』第15號, 韓國新石器學會.
- 鄭秋根, 2008,「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趙明來, 2007,「嶺南地域朝鮮時代灰炭墓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주영민, 2005,「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 – 9~16世紀 墓域施設墳墓를 中心으로-」,『지역과 역사 17, 부경역 사연구소』.
- _____, 2007,「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중복현상에 대하여」,『江原考古學報』10, 강원고고학회.
- _____, 2017,「경남지방 묘역시설분묘의 현황과 특징」,『한국민족문화』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19,「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분류와 특징」,『고려시대 능묘의 조형과 문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中原文化財研究院, 2015,『淸州 龍潭洞 호미골 遺蹟』.
- 최기훈, 2019,「풍수지리에서의 혈의 결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崔異敦, 2010,「조선 초기 향리의 지위와 신분」,『진단학보』110, 진단학회.
-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8,『강화 인산리 황골고묘』.
- 漢陽大學校·京畿道, 1993,『高陽中山地區文化遺蹟』.
- 韓惠先, 2014,「高麗時代 陶器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4,『康津 三興里 窯址 1』.

Hierarch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raveyard-typed Tombs in the Goryeo Dynasty

- Centered on South Korea Regions -

Lee, Won-Jeong(Researcher, The Saer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this study, tombs with graveyard facilities were classified into graveyard-typed tombs and divided into three stages to understand their changes. In the 1st step before the 12th century, graveyard-typed tombs which had been constructed around Gaegyeong gradually spread to Yanggwang-do, south of Gyeonggi, with small sized graveyard-typed tombs only. In the 2nd step, from the 13th to the middle of the 14th century, tombs began to be built throughout South Korea in earnest and medium sized graveyard-typed tombs appeared. In the 3rd step of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ranging from the late 14th century to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the number of the graveyard-typed tombs recorded the highest and it is possible to see the large sized tombs.

The hierarchies in the graveyard-typed tomb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similarities in the tombs for royals and officials. The type I d2 · I e2 · II b2 may be referred to as the higher and the type II b1 · II c1 · II d1 as the lower types.

It is assumed that the buried of the graveyard-typed tombs after the 12th century were those of the upper middle class that could use the compulsory labor. In particular, tombs of the higher hierarchy are regarded to be the ones for the gentry(Sajok) who cam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moved to certain region. Accordingly, formative diversity in the higher hierarchy can be interpreted to be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rank of the gentry and hierarchy of their

families. Furthermore, the status of the local officials(Hyangri) began to be lowered after the 12th century and the graveyard-typed tombs for the lower hierarchy may be construc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tombs for the officials.

On the other hand, graveyard-typed tombs tended to be located mainly at a big town along the traffic networks such as Yeok-ro and Joun-Ro. Besides, relics from the island areas of Yanggwang-do show that graveyard-typed tombs had the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construction groups. The study reveals that at Jeolla-Do and Gyeongsang-Do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number of the graveyard-typed tombs due to the influence of Eight Injunctions by Taejo, exploitation of Jeolla-Do and the growth of the emerging gentry at Gyeongsang-Do. Besides, at Tamla there were more higher types than in land under the influence of Yuan. At Gyoju-Do and Donggye, it is not possible to see the graveyard-typed tombs since rough terrains prevented local officials from growing up.

Key words : Graveyard-typed tombs,Tombs in the Goryeo Dynasty,Graveyard facilities,Hierarchies